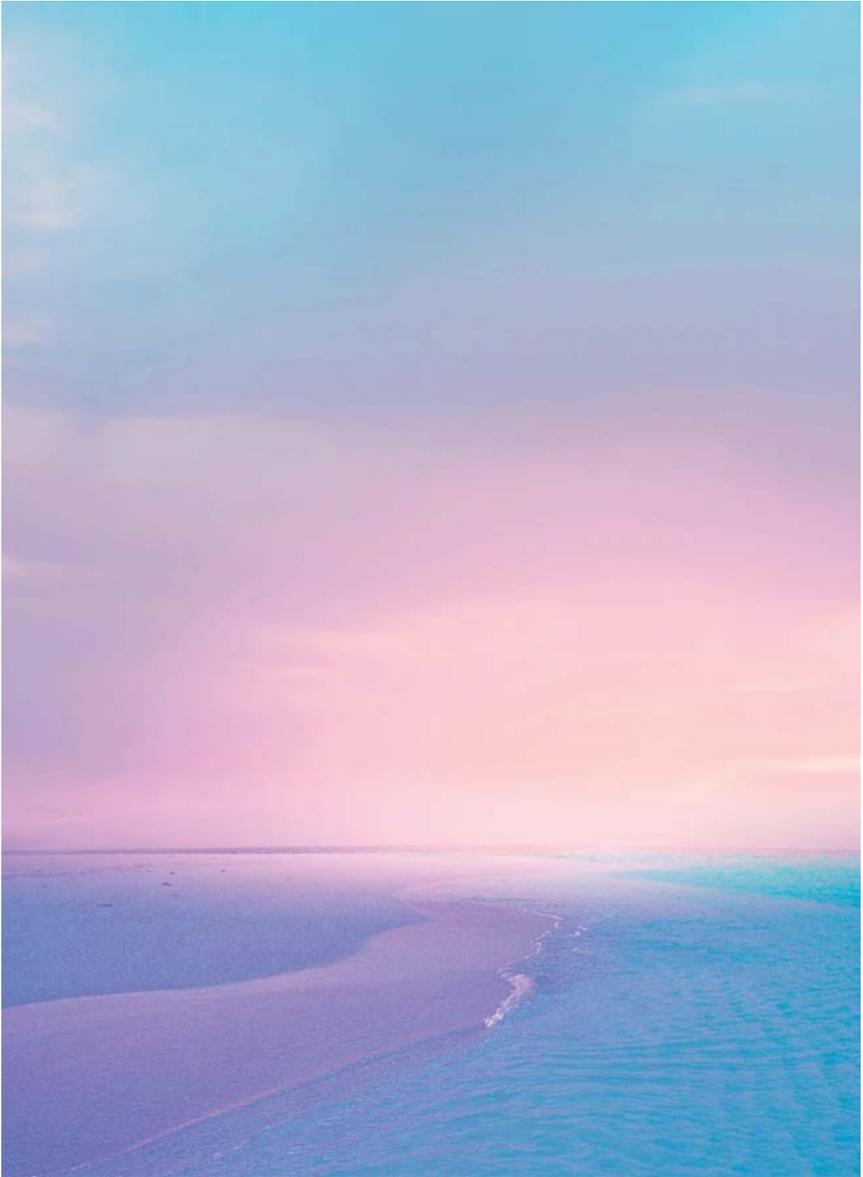


202306

수
마
나
마
영
리
님
썸
머



통일
선교
주간

2023. 6.19 - 25

ONE HAN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CONTENTS

June 2023

하늘을 여는 기도	구원자요 방패가 되시나이다	2
깊어지는 영성	붙들린 마음 김경진	4
묵상에 붙임	응원하시는 하나님 맥스 루케이도	6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10
말씀 개관		12
6월 본문	마가복음·역대상·욥기	16
	1주(6/5) 2주(6/12) 3주(6/19) 4주(6/26)	

FAITH

땅끝에서 온 편지	말론과 기룬의 땅 정성욱·김금숙	32
소망사랑방	특별한 통로 김지혜·오지용	64
이스라엘과 코메르 홀	이스라엘 건국의 첫 정착지, 리손 레 짜온 홍성민	98
공간공감	수피아여학교 윈스브로우홀 홍성찬	132
이달의 기도	땅에서 하늘로	156

COMMUNICATION

문화읽기	<더 웨일> 바람직한 전도란 무엇일까 황영미	158
소망마당	더불어 더 깊이 청년부	162
예배자의 길	6월 우리의 고백 김경연·김성진·최창실	166
뿌리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박경수·이근복	170
세계관과 예술의 만남	세계관과 예술의 만남을 회고하며 허운정	174
돌봄의 창	유산균 제제의 효과와 사용 오수혁	178
통일선교	한 발짝 가까이 이경혜·윤OO	182
소망뉴스		186



구원자요 방패가 되시나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린 마음

글 김경진



세계사적으로 어리석은 거래는 종종 이루어져 왔습니다. 러시아가 보물과도 같은 땅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도한 사건이나, 네덜란드인이 맨해튼을 영국에 양도한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래는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떤 분은 평생에 가장 어리석은 거래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거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에서가 팔죽 한 그릇을 받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에서가 팔죽을 꽤나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은 ‘에돔’ 즉 ‘붉다’라는 그의 별명이 야곱에게 팔죽 한 그릇을 건넨 말에서 붙여졌다고 알려 줍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창 25:30)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창 25:31)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의 거래이지만 에서는 고민할 겨를 없이 장자권을 팔기로 맹세합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창 25:32)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대두됩니다. 하나는 현재를 가리키는 ‘지금’이라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죽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에서는

허기짐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소연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어렵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리 봐도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렵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사실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조금 배가 고프고,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 죽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에서가 팔죽 한 그릇으로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겨우 6시간 정도 허기를 버티는 수준이었습니다. 배는 또다시 고파졌겠죠. 그러나 맏아들의 권리는 어떠합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대대로 이어지는 권위입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잠깐의 배고픔을 채우고자 영원한 복을 내어 주는 미련한 일을 벌입니다. 그가 얻고자 한 것은 생리적인 고 말초적인 욕망의 해결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도 거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거래와는 사뭇 다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생리적인 욕구를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배고픔이셨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리적인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해야 하는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또다시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모두 주겠다.” 이번에도 주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과 교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영광을 알지 못한 채, 이방 여인 두 사람과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되심을 믿으며 절망과 낙심 중에서 일어나 맡겨 주신 사명에 성실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Meditation | 묵상에 붙임

응원하시는 하나님

글 맥스 루케이도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다.

“그렇지도 모른다”도 아니다. “한때 그랬었다”도 아니다. “여태 그랬다”도 아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신다! 당신 편으로 계신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당신이 이 문장을 읽는 이 순간.

줄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내일 다시 올 필요도 없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보다 당신께 더 가까우실 수 없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당신이 잘한다고 커지는 것도 아니요

당신이 못한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분은 당신 편이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 보라.

하나님이 당신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신다.

멀리 결승선을 내다보라.

하나님이 당신의 걸음걸음에 박수를 보내고 계신다.

관람석에 앉아 큰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 보라.

너무 지쳐 계속 뛰기 힘든가? 그분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너무 낙심돼 싸우기 어려운가?

그분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다.

그분께 달력이 있다면 당신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이다.

그분이 차를 몬다면 범퍼에 당신의 이름이 붙어 있을 것이다.

천국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껍질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셨을 것이다.

그분께 문신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문신의 글귀도 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이사야 49:16).

- 맥스 루케이도 『주와 같이 걸가는 것』(복 있는 사람, 2021) 106~107쪽.

WORD

마가복음 · 역대상 · 욥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마가복음 15:16-32

— **목요일** 1944년 254년 부활절주일

말씀 속으로

16 공인들이 제수를 싣고 브타이도르문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 가지 순 것임을 도모코
The soldiers led Jesus away into the palace that is, the Praetorium and called together the whole company of soldiers;

17 예수에게 좌서 옷을 입고 가시권을 얹어 제하고
They put a purple robe on him, then twisted together a crown of thorns and set it on him,

18 장래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갓길말사이다 하고
And they began to call out to him, "Hail, King of the Jews!"

19 갓대로 그의 사리를 쳐서 찔을 벨소리 같이 갓하되
Again and again they struck him on the head with a staff and spit on him. Falling on their knees, they paid homage to him,

16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15~16장)

빌라도의 심문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곧 ‘해골의 곳’에 이르신다.

실오라기 같은 옷마저도 빼앗겠다는 인간의 고집스러움이 그 땅에 새겨진다(15:24).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15:31)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15:32)

좁처럼 그칠 줄 모르는 조롱과 멸시는 어리석은 아우성을 보낼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 주신다.

제 육시, 온 땅에 껌껌한 어둠이 임한다.

죽어 가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이 만물을 덮은 시간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로막힌 하늘과 땅을 가로지르는 크나큰 음성이 두 차례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게 된다(15:34-37).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분리된 죽음 안에서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새 길이 열린다(15:38). 그

길에 로마의 한 백부장이 들어서게 되고, 자신 안에 움터오르는 생명의 싹에 전율하기 시작한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15:39)

그의 고백과 동시에 땅에는 조롱이 그치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이 길 위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여자와 남자가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 바로 그곳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역사한다(16:20).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고 죽으신 이가 소망이 된 새로운 세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 복이 임한다.

역대상(1~3장)

버림받은 땅으로 치부된 갈릴리를 먼저 찾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죄에 놀린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의지를 담는다(막 14:28, 막 16:7).

이 말씀이 포로에서 귀환한, 정확히 말하자면 절망하게 된 유다 백성을 찾아 간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국 땅을 밟게 된 기쁨도 잠시, 당장에 살 집을 마련하는 일부터 땅을 개간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과제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되는 역사가 한차례 있었지만 간간이 터져 나오는 영적·사회적 문제들은 그들을 또다시 낙심케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명의 역대기 저자가 선두에 서며 공동체를 깨운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유다 백성이 아니냐!”

통치자의 지팡이가 난다는,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에도 1~9장에 이르는 긴 족보는 순종과 불순종을 거듭한 유다 백성의 역사를 담으며 다시 질문한다.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들을 부르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도록 시선을 모은다. 환난에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역전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의 나라와 의가 임한다.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3일 주간		
1(목)	마가복음 15:16~32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2(금)	15:33~41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백부장의 고백
3(토)	요기 1:1~12	요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
5~10일 주간		
5(월)	요기 1:13~22	요에게 임한 시험 1
6(화)	마가복음 15:42~47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아리마대 요셉
7(수)	16:1~8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
8(목)	16:9~13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9(금)	16:14~20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10(토)	요기 2:1~10	요에게 임한 시험 2
12~17일 주간		
12(월)	요기 2:11~13	요를 방문한 세 친구
13(화)	역대상 1:1~4	아담에서 노아의 족보
14(수)	1:5~27	노아에서 아브람의 족보
15(목)	1:28~34	아브람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16(금)	1:35~54	에서의 족보
17(토)	요기 3:1~19	생일을 저주하는 요의 탄식
19~24일 주간		
19(월)	요기 3:20~26	죽음을 갈구하는 요의 탄식
20(화)	역대상 2:1~17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 유다의 자손
21(수)	2:18~24	유다 자손 중 헤스론의 자손
22(목)	2:25~41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므엘의 자손
23(금)	2:42~55	갈렙의 자손
24(토)	요기 4:1~11	엘리바스의 충고 1
26~30일 주간		
26(월)	요기 4:12~21	엘리바스의 충고 2
27(화)	역대상 3:1~9	다윗 왕의 아들과 딸
28(수)	3:10~16	솔로몬 왕의 자손 1
29(목)	3:17~24	솔로몬 왕의 자손 2
30(금)	4:1~10	아베스의 기도

6

June 2023

SUN

MON

TUE

WED

4

5

6 현충일

7

11

12

13

14

화요조찬 성경공부 ·
성인성서연구(화요일) 증강

18

19

20

21

권사회 월례회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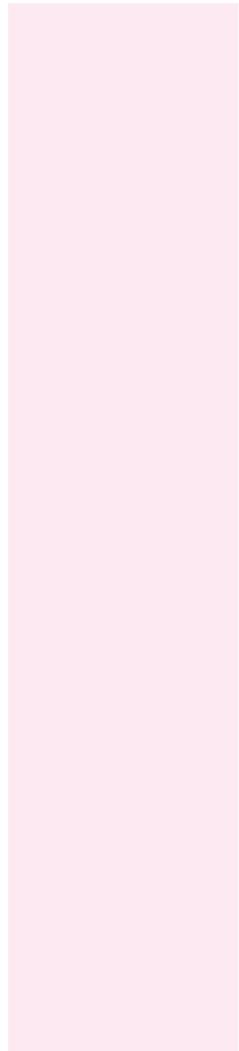
26

27

28

7	S	M	T	W	T	F	S
Jul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₃₀	^{24/} ₃₁	25	26	27	28	29

THU	FRI	SAT
1	2	3
8	9 여전도회 연합예배	10
15 성인성서연구(목요일) 종강	16	17
22 영성마을(~24)	23 6·25 나라사랑 기도회	24
29	30	



1

마가복음 15:16~32

목요일

오늘의 찬송 254 내 주의 보혈은

 말씀 속으로

- 16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The soldiers led Jesus away into the palace (that is, the Praetorium) and called together the whole company of soldiers.

- 17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They put a purple robe on him, then twisted together a crown of thorns and set it on him.

- 18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And they began to call out to him, "Hail, king of the Jews!"

- 19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Again and again they struck him on the head with a staff and spit on him, Falling on their knees, they paid homage to him.

20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And when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off the purple robe and put his own clothes on him. Then they led him out to crucify him.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A certain man from Cyrene, Simon, the father of Alexander and Rufus, was passing by on his way in from the country, and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22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They brought Jesus to the p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The Place of the Skull).

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Then they offered him wine mixed with myrrh, but he did not take it.

24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And they crucified him. Dividing up his clothes, they cast lots to see what each would get.

15:23 몰약을 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는 몸을 마비시켜 극도의 고통을 피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1

—
목

25 때가 제삼 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It was the third hour when they crucified him.

26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The written notice of the charge against him read: THE KING OF THE JEWS.

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They crucified two robbers with him,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28 (없음)

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Those who passed by hurled insults at him, shaking their heads and saying, "So! You who are going to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in three days,

30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come down from the cross and save yourself!"

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In the same way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mocked him among themselves. "He saved others," they said, "but he can't save himself!"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 를 욕하더라

"Let this Christ, this King of Israel,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that we may see and believe." Those crucified with him also heaped insults on him.

15:28

어떤 사본에는,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가 있음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조롱이 끝이 없습니다(16~20).

빌라도의 심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15:1-5). 그의 판결과 함께 주님이 로마 군인에게 이끌리어 ‘뜰’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16절).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머문 관저로 여겨지는 이곳에서 로마의 온 군대가 예수님을 둘러싸자, 위협적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됩니다. 그때에 군인들은 마지막으로 주님께 남겨진 옷조차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며 조롱하는 일에 심취해 있습니다(20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여, 어디 한번 왕이라고 말해보라!” 그런데 놀랍게도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는 손길 사이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군인들이 보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오르신 길은 조롱에서 시작하여 조롱으로 마친 수치였지만, 십자가의 길 안으로 들어가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2. 대속은 겸손과 사랑의 극치입니다(21~32).

한차례 채찍질을 당하신 후라 예수님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때마침 길을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명령합니다(21절). 힘겹게 그리고 숨가쁘게 성치 않은 몸을 이끌며 주님이 이르신 곳은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언덕이었습니다(22절). 이름만큼이나 가슴 시린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기억하라는 듯 마가는 골고다의 의미를 번역하여 기록해 두기까지 합니다. 이 일에 먼저는 예수님이 앞장서시며 몰약을 탄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며 새기시기로 결단합니다(23절). 그럼에도 여전히 야유를 쏟아내는 인간의 모습은 그날에 주님이 신체적인 아픔만을 느끼셨을지 반문하게 만듭니다(29~32절).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을 끝까지 겸비하게 세워 가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역사가 탄생됩니다(27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로마 군인에서 시작하여 대제사장, 서기관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를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내 입술의 고백을 돌아보십시오.
2. 의인의 고난에는 땅을 대속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상상하며 우리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5:4~7,9 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⁵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⁶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⁷ 주님,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⁹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

—
금요일

마가복음 15:33~41

오늘의 찬송 93 예수는 나의 힘ियो

 말씀 속으로

- 33 제육 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 시까지 계속하더니

At the sixth hour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e ninth hour.

- 34 제구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And a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Eloi, Eloi, lama sabachthani?" - which mean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 35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When some of those standing near heard this, they said, "Listen, he's calling Elijah."

-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One man ran, filled a sponge with wine vinegar, put it on a stick, and offered it to Jesus to drink. "Now leave him alone. Let's see if Elijah comes to take him down," he said.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With a loud cry, Jesus breathed his last.

38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And when the centurion, who stood there in front of Jesus, heard his cry and saw how he died, he said,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40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Some women were watching from a distance. Among them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the younger and of Joseph, and Salome.

41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In Galilee these women had followed him and cared for his needs. Many other women who had come up with him to Jerusalem were also there.

15:36 엘리야

예수님이 외치신 "엘리 엘리"를 잘못 듣고 생겨난 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엘리야를 의인의 구주로 여긴 일부 유대 전통을 보여 준다는 해석이 따른다.

15:40 여자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여제자들의 존재가 명확하게 언급되는 구절이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비통히 외치십니다(33~38).

제삼 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육 시에 이르러서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33절). 죽어 가는 아들을 차마 바라보기 어려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을 보여 주는 듯합니다. 그렇게 온 천지가 깜깜하게 가로막힌 채로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이때에, 어둠을 쫓아내는 듯한 부르짖음이 땅에서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34절) ‘큰’ 소리였다는 마가의 증언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완전하게 끊어지는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땅의 어리석은 아우성은 계속될 뿐입니다(35~36절). 마침내 정처 없이 떠도는 온갖 말을 다 덮을 만큼 ‘큰’ 소리가 또다시 이어지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37절). 이후로 땅에는 조롱이 그치고, 십자가의 죽음이 불러일으킨 변화가 나지막이 기록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38절)

2. 백부장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39~41)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성소의 휘장 사이로 새 길이 열립니다. 우리를 위하고 대신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사건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 주는 듯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부터 생명의 싹이 틔어 오르는 역설적인 장면을 함께 기록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39절)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으로부터 터져나온 고백은 만민을 위한 복음의 소식을 드높입니다. 로마 정부가 부여한 제법 높은 지위를 버리고 목숨까지 걸겠다는 각오가 임한 그의 고백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잠잠히 깨닫게도 합니다. 그를 이어서는 한 무리의 여자들이 등장하며, 십자가 사건 이후 이방인과 여성이 먼저 등장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끊어지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모든 인간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2. 백부장과 여인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고’, ‘깨닫고’, ‘전하는’ 역사를 증언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무엇을 보고 전하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7:1,4 ¹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3

욥기 1:1~12

토요일

오늘의 찬송 38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말씀 속으로

- 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In the land of Uz there lived a man whose name was Job. This man was blameless and upright; he feared God and shunned evil.

-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He had seven sons and three daughters,

-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and he owned seven thousand sheep, three thousand camels, five hundred yoke of oxen and five hundred donkeys, and had a large number of servants. He was the greatest man among all the people of the East.

- 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His sons used to take turns holding feasts in their homes, and they would invite their three sisters to eat and drink with them.

-
- 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When a period of feasting had run its course, Job would send and have them purified. Early in the morning he would sacrifice a burnt offering for each of them, thinking, "Perhaps my children have sinned and cursed God in their hearts." This was Job's regular custom.

- 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One day the angels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also came with them.

- 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The LORD said to Satan, "Where have you come from?" Satan answered the LORD, "From roaming through the earth and going back and forth in it."

- 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Then the LORD said to Satan,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ere is no one on earth like him; he is blameless and upright, a man who fears God and shuns evil."

11 우스 땅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으나 예돔과 관련된 땅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옳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Does Job fear God for nothing?” Satan replied.

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Have you not put a hedge around him and his household and everything he has? You have blessed the work of his hands, so that his flocks and herds are spread throughout the land.

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But stretch out your hand and strike everything he has, and he will surely curse you to your face.”

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The LORD said to Satan, “Very well, then, everything he has is in your hands, but on the man himself do not lay a finger.” Then Sata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은 까닭 없는 믿음을 소유한 의인입니다(1~5).

구체적인 저작 연대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배경으로 삼는다는 욥기서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과 믿음’, ‘고난과 은혜’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1절은 ‘욥’이 어떤 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2절은 그의 순결한 믿음 덕분에 얻게 된 풍성한 재물과 열 자녀를 두는 번성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당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믿음과 재물의 복을 연결하는 사고가 흔하게 통용되었습니다. 욥의 강직한 믿음은 제의적인 삶에서도 나타나며 자녀를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적 가장의 모습이 묘사됩니다(5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지신 대속적 죽음을 상기하게 되는 한편, 의인이 고난받는 데에는 땅의 질고를 함께 짊어지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2.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6~12)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나름대로 고민하며 순종에는 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이른바 율법주의적 고난 이해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는 ‘의인’ 욥에게 닥친 불행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반문하며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기에 앞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 사이에서 천상 회의가 열립니다(6절). 그때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찾아온 사탄에 관한 언급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그의 본성을 암시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날카롭게 찌르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8절) 사탄은 욥을 보면서도 믿음이 아닌 소유물에 초점을 두며 피조물이 재물 때문에 창조주를 경외한다고 믿었습니다(9~10절).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그야말로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자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안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시고자 까닭 없이 예배하는 욥의 믿음을 사용하시며 이끌어 가시고자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닭 없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와 먼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합니다.
2. ‘내 종’이라 칭하시는 음성 안에서 욥의 결말은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를 향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으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3:18~22 ¹⁸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¹⁹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 주신다. ²⁰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²¹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²²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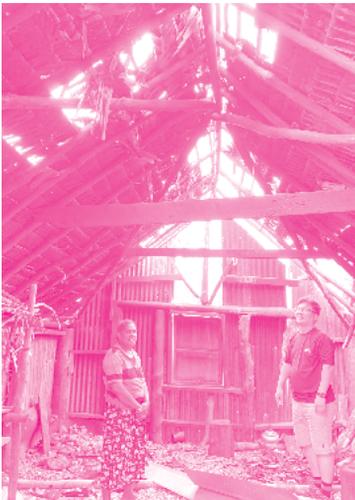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론과 기론의 땅

글 정성욱·김금숙 (바누아투 선교사)

사사시대에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헬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남자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룻기 1:1-5



남태평양의 섬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야자수 그늘 아래 해먹에서 바람을 만끽하고 산호들 사이를 헤엄치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각종 열대과일과 물고기로 풍성한 식탁을 그려 봅니다. 바누아투는 호주사람들이 여행오고자 하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거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화산과 해저 화산을 볼 수 있고 해저에 침몰된 배속을 다이빙할 수 있습니다. 문명과 전기가 없는 원시 부족의 삶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에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 유튜브들이 다녀가서 작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 외국인들도 팬데믹 이후 점점 더 방문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에 살면서 지진과 사이클론은 일상입니다. 올해 3월에는 한 주에 사이클론 두 개 Twin Cyclone: Kevin & July가 저희 섬과 남부 지역 섬들을 강타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다른 섬들과 통신이 연결이 안되어 프랑스와 호주군함이 발전기와 통신 시설을 가지고 복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군함도 구호물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도 섬에 사는 저희 집은 20일 동안 전기가 끊겼고, 섬 북부는 전기가 공급되기까지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행기와 배가

오갈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서 도로에 나뒹굴고, 나무가 넘어지고 뿔뿔히 숲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집들도 보입니다.

현지 목사님 댁에 들렀는데 지붕이 뚫려 있고 나탕구라 나뭇잎으로 엮은 부엌도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와중에 넨시 사모는 모임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느라 성경과 책 두어 권을 펴 놓고 돋보기를 쓴 채로 저희를 반겼습니다. 무너진 곳 사이로 소망의 빛이 보입니다.

5월에는 2년마다 각 섬에 대표들이 모여서 열리는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근처 작은 이 피라섬에서 제가 주강사로 8번의 강의를 진행하기로 준비되었는데, 사이클론으로 무너진 곳을 복구하기 위해 모임을 취소하였습니다. 많은 모임들과 계획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지원을 약속하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급한 걸 제외하고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야 복구가 시작되고 1년이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도회에 가서 교단 리더들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몇 년전 방문한 마스크린섬 사람들이 코로나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백신을 다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냉동 시설이 없어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백신만 접종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추장들이 불신하고 못 맞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역교회와 목사들과 장로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최근 바누아투장로교단의 리더들이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신학교 전학장 피아마라카우 목사, 선교부 장로 이요셉 목사, 장신대에서 학업을 계획했던 크리스토퍼 목사, 2018년 한국장로교단 총회 참석 후 소망교회에 방문하여 예배하고 세계선교부 토요일새벽모임에도 다녀갔던 알란나부끼 목사,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알 수도 없고 적합한 약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바누아투 땅이 질병과 황폐의 땅이 되어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이 손짓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쁨의 땅이 아니라 벌레와 독충이 가득한 괴로움의 정글이 커다란 벽처럼 서 있습니다. 룯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 보아스와 같은 나눔과 경륜의 사람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땅에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굳건하게 하소서.

세상 유혹의 소리가 커지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 거세질 때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와 얼굴을 마주하게 하소서.

4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6/4~10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
에게만 있다. (시 62:5)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욥기 1:13~22

월요일

오늘의 찬송 417 주 예수 넓은 품에

말씀 속으로

- 13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One day when Job's sons and daughters were feasting and drinking wine at the oldest brother's house,

- 14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a messenger came to Job and said, "The oxen were plowing and the donkeys were grazing nearby,

- 15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and the Sabean's attacked and carried them off. They put the servants to the sword, and I am the only one who has escaped to tell you!"

-
- 16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
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
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nother messenger came and said, "The fire of God fell from the sky and burned up the sheep and the servants, and I am the only one who has escaped to tell you!"

- 17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
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
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nother messenger came and said, "The Chaldeans formed three raiding parties and swept down on your camels and carried them off. They put the servants to the sword, and I am the only one who has escaped to tell you!"

- 18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만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
시는데

While he was still speaking, yet another messenger came and said, "Your sons and daughters were feasting and drinking wine at the oldest brother's house,

19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when suddenly a mighty wind swept in from the desert and struck the four corners of the house. It collapsed on them and they are dead, and I am the only one who has escaped to tell you!"

20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At this, Job got up and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Then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

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and sai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In all this, Job did not sin by charging God with wrongdo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십니다(13~19).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한마디가 욥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말씀이 참임을 입증해 내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욥을 초대하시며 믿음의 경주에서 그가 승리하도록 이끄시겠다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욥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을 금지시키며 하나님의 판결을 넘어설 수 없는 사탄의 존재를 미리 보여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1:12). 순식간에 욥에게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 강도가 점차 강해집니다. 스바 사람이 침략하여 소와 나귀를 빼앗고 욥의 종을 칼로 죽였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린 심판의 불이 양과 종의 목숨을 앗아 갑니다(14~16절).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은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기도 합니다(17절). 마침내 더 이상은 고통을 외면할 수도, 객관화시킬 수도 없는 처지에 이릅니다. 말형의 집에서 즐거이 음식을 먹는 중에 욥의 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19절).

2. 욥이 원망하지 않습니다(20~22).

수많은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순간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잃었으니 얼마나 비통할까 싶지만 욥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21절) “내 종 욥을 보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욥 그가 대답을 보인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주목하시며, 그를 통하여 그가 속한 땅이 구원받는 의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삶을 땅에 엮으려 예배하는 모습과 함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과 연결지어 말씀합니다(20,22절). 욥은 실로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의인이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이 욥에게 믿음을 보셨으나 사탄은 재물을 봅니다. 서로 다른 두 질서가 충돌하며 일어난 고난 속에서 “까닭 없는” 믿음의 의미를 고민해 봅시다. 재물이 있거나 없는 중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2. 욥기서는 의로운 믿음을 고난 중에 예배하며, 원망하지 않는 삶에 연결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원망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4:12~20 ¹²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¹³ 네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네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¹⁴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¹⁵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¹⁶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 버리신다. ¹⁷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 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 ¹⁸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¹⁹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²⁰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 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6

마가복음 15:42~47

화요일
현충일

오늘의 찬송 449 예수 따라가며

 말씀 속으로

42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It was Preparation Day (that is, the day before the Sabbath). So as evening approached,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Joseph of Arimathea, a prominent member of the Council, who was himself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went boldly to Pilate and asked for Jesus' body.

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
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Pilate was surprised to hear that he was already dead. Summoning the centurion, he asked him if Jesus had already died.

45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When he learned from the centurion that it was so, he gave the body to Joseph.

46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관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So Joseph bought some linen cloth, took down the body, wrapped it in the linen, and placed it in a tomb cut out of rock. Then he rolled a stone against the entrance of the tomb.

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oses saw where he was laid.

15:44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십자가형을 받고 난 후 일반적으로는 3~4일까지 목숨을 부지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고 빌라도가 의심을 품게 된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42~45).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여 주는 1장 1절은 한 백부장의 고백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15:39). 그리고 그를 이어 본 단락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자입니다(43절). 마가는 그가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유대인의 사법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좇으며 십자가 처형을 반대하고 있었다는 셈입니다. 그의 모습을 가리켜 요한복음은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인 줄 스스로 속였다고 묘사하기도 합니다(19:38).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당돌히’, 그러니까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43절). 요셉의 믿음이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대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45절).

2.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게 됩니다(46~47).

유대인들은 시신을 장사하는 관습을 가집니다. 밤이 새도록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땅이 불결해질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믿은 까닭입니다(신 21:23). 그래서 유대인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방문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론 십자가 처형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사망 선고가 확정되는 일 모두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면이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44~45절). 예수님의 죽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세마포로 고이 감싼 후에 준비해 둔 무덤 안에 모셔 둡니다(46절). 그리고는 돌문으로 무덤을 가리며 시신이 도난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굳게 닫힌 돌문 사이로 모두가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세상이 함께 막을 내리는데, 저편에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여인들이 보입니다(47절). 이제 곧 그들에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십자가 사건 이후 로마의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가져다주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2. 굳게 닫힌 돌문은 이전의 세상이 종결되고 새롭게 시작될 세상의 서막을 암시합니다. 날마다 죽고 사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0:5~9 ⁵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⁶ 주님께서서는 내 두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⁷ 그 때에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⁸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⁹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7

마가복음 16:1~8

수요일

오늘의 찬송 171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 속으로

- 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When the Sabbath was over,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ought spices so that they might go to anoint Jesus' body.

-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just after sunrise, they were on their way to the tomb

- 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and they asked each other, "Who will roll the stone away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 4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But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that the stone, which was very large, had been rolled away.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As they entered the tomb, they saw a young man dressed in a white robe sitting on the right side, and they were alarmed.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Don't be alarmed,” he said. “You are looking for Jesus the Nazarene, who was crucifi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But go,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He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just as he told you.’”

8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Trembling and bewildered, the women went out and fled from the tomb. They said nothing to anyone, because they were afrai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여인들이 굴러진 돌문을 보고 놀랍니다(1~4).

15장 내내 마가는 제삼 시, 제육 시, 제구 시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며 십자가를 중심으로 메시야의 비밀이 계시되는 현실을 알립니다. 이제 본 단락은 ‘안식 후 첫날’을 알리며 장사되신 예수님의 소식 뒤로 새롭게 일어날 사건을 암시합니다(2절). 그날에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예수님 곁을 지키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준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장례 예법을 마무리하고자 무덤을 찾아갑니다(3절). 가는 길목에서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서로가 내심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참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무덤 문이 활짝 열린 채로 그들을 맞이합니다(2~4절). 성경은 이 일이 얼마나 뜻밖의 사건인지를 강조하고자 무덤을 닫고 있던 돌문이 ‘심히’ 쾸다고 말하는가 하면, 신적 수동태가 사용된 ‘굴러져 있었다’는 표현은 여인들에 앞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을 느끼게 합니다.

2. 보는 일에는 증언도 따라야 합니다(5~8).

열린 돌문을 본 여인들의 심정은 복잡했을 듯합니다. 깜짝 놀라기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으면 어쩌나 염려도 한가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빨리 들어선 무덤 안에서 예상 밖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을 건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यो.”(6절) 그리고는 생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며, 갈릴리에 먼저 가서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예고해 줍니다(7절; 14:28). 성경은 동일한 구절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청년의 존재를 알리는 한편, 심판받은 땅이라 여겨진 갈릴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등진 죄인을 구속하시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서’, ‘전해야’ 하는 시점에 여인들은 도리어 두려워하며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8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굴러진 돌문은 나사렛 예수에서 메시아 예수로의 변화를 입증하며, 죽음이 폐기되고 영생의 길이 열린 세상을 보여 줍니다. 부활 기사를 묵상하며 두려움에 사는지 혹은 기쁨 가운데 거하는지를 돌아봅시다.
2. 갈릴리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믿음으로 함께하며 살아 계신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8:1~4 ¹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²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 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못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³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⁴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8

마가복음 16:9~13

목요일

오늘의 찬송 542 구주 예수 의지함아

 말씀 속으로

- 9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When Jesus rose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appeared first to Mary Magdalene, out of whom he had driven seven demons,

- 10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She went and told those who had been with him and who were mourning and weeping.

- 11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alive and that she had seen him, they did not believe it.

- 12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Afterward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to two of them while they were walking in the country.

13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
하니라

These returned and reported it to the rest; but they did not believe them either.

16:9
어떤 사본에는, 9~20절
까지 없음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합니다(9~11).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흰옷 입은 청년의 입을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16:6). 혹독하지만 너무도 정확한 이 판결이 먼저는 여인들을 향하였다는 점이 주의 를 끌기도 합니다.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다가 무덤을 찾을 만큼 정성을 보인 그들이나, 망연자 실한 마음을 따라 방황하게 된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선고에는 변함이 없습 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는 천사의 외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즉 메시아 로서의 예수님이 확증되었듯이, 죄인을 의로운 자라고 칭하시며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갈릴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원으로 제자들이 되돌아가는 여정 에는 여전히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인간의 왜곡된 사 랑을 바르게 세우시며 강권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2.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12~13).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증언을 듣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묘사되었 습니다(16:9~11).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주님을 안 자들에게 부활 의 소식이 도리어 기쁨이 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렇듯 ‘믿음 없음’ 의 실체가 묘사되는 가운데 본 단락은 제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는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두 제자를 전합니다. 그들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없었고, 말씀을 강론해 주시는 가르침을 듣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13절; 눅 24:31~32). 제자들을 사로잡은 말씀의 능력이 이후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임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지각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 을 수 있는 피조물의 한계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아는 것이 도리어 믿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소식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2. 말씀의 능력은 닫혀진 눈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7:12~13,19 ¹²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¹³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¹⁹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9

마가복음 16:14~20

—
금요일

오늘의 찬송 505 온 세상 위하여

 말씀 속으로

-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Later Jesus appeared to the Eleven as they were eating; he rebuked them for their lack of faith and their stubborn refusal to believe those who had seen him after he had risen.

- 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An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drive out demons;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18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and when they drink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at all; they will place their hands on sick people, and they will get well.”

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After the Lord Jesus had spoken to them, he was taken up into heaven and he sat at the right hand of God,

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Then the disciples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and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confirmed his word by the signs that accompanied it,

16:14 음식 먹을 때에
2:15 난하주를 보라

16:15 만민에게
헬라어 '온 창조세계에'

16:16 세례
헬라어 또는 '침례'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14~18).

엠크오로 향하는 도상에서 두 제자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은 이 일을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더불어 말씀을 강론하시는 사건과 연결짓 습니다(눅 24:13~32).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전하며 궁극적으로는 제자들 또한 말씀을 전하며 많은 자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에 참여하기를 부탁한 셈입니 다.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거나 말씀을 기초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면 누구든지 언제라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4절). 이에 주님은 두 제자에 이어 열한 제자가 함께하는 자리에도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 라”(15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따를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변화를 받고 깨어나 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가리켜 ‘세례’ 곧 하나님께 돌이킴을 이야기하며,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때로는 놀라운 이적이 함께한다고 증언합니다(16-17절).

2.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19~20)

마가복음의 마지막 두 절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기록하 며,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근원을 밝힙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 사”(20절) 하늘로 올려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하 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세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되며 복음의 내용이자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 운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껏 마가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관한 주제를 따라 그의 복음서를 작성하며 로마의 펍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을 격려했습니다. 한편으로 19절의 말 씀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하기까 지 우리가 하여금 말씀을 따라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삶을 요청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 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산 믿음, 산 증인들이 허다한 무리처럼 늘어날 미래가 함께 약속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말씀은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솟아나서 서로가 서로를 풀고 세워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2.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선물로 주신 복음이 복한 땅에도 뿌리내리고 하 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2:27~31 ²⁷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²⁸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²⁹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³⁰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³¹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0

욥기 2:1~10

토요일

오늘의 찬송 407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말씀 속으로

- 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On another day the angels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also came with them to present himself before him.

- 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And the LORD said to Satan, "Where have you come from?" Satan answered the LORD, "From roaming through the earth and going back and forth in it."

- 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Then the LORD said to Satan,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ere is no one on earth like him; he is blameless and upright, a man who fears God and shuns evil. And he still maintains his integrity, though you incited me against him to ruin him without any reason."

-
- 4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
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Skin for skin!” Satan replied, “A man will give all he has for his own life.

- 5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
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But stretch out your hand and strike his flesh and bones, and he will surely curse you to your face.”

- 6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The LORD said to Satan, “Very well, then, he is in your hands; but you must spare his life.”

- 7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욱을 쳐서 그의 발바닥
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So Sata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afflicted Job with painful sores from the soles of his feet to the top of his head.

- 8 욱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
더니

Then Job took a piece of broken pottery and scraped himself with it as he sat among the ashes.

10

— 토

9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His wife said to him, "Are you still holding on to your integrity? Curse God and die!"

10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He replied, "You are talking like a foolish woman. Shall we accept good from God, and not trouble?" In all this, Job did not sin in what he sai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사탄의 공격은 시기심에서 비롯됩니다(1~6).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3절의 표현은 원어상으로는 ‘부자’인 욥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불어닥친 시험에 재산을 탕진하고 생떼 같은 자식을 보내야 했으니 얼마나 처참한 심정이었는지 상상해 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욥을 두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1:22) 과연 말 한마디도 심혈을 기울이며 죄를 보태지 않은 모습이 의로운 자 답다는 평가를 내리게 합니다. 그와 달리 사탄은 하나님께 또다시 읍소하며 그분의 말씀과 주권을 부정하려고 듭니다(4절). 먼저는 ‘재물’을 이우삼아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일렀다면, 이번에는 ‘건강’을 비집고 틈타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시며 천지의 주재이신 여호와가 사람을 믿는다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는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3절) 어쩌면 사탄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을 시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입니다(7~10).

욥을 믿으시고 또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체로 겸손함을 보여 줍니다. 겸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작은 말에 움직이실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의 집요한 공격은 인간을 부르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트리는 꿈수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2:5) 그러나 발바닥에서 정수리를 덮은 악한 종기 때문에 한시도 견딜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평안합니다.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10절) 오히려 성경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듯한 아내를 묘사하며 욥의 믿음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래도 당신은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사랑의 역사를 끊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공략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돌아보며 믿음에 기초하여 듣고, 보고, 말하는 의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욥을 믿으신 만큼 시험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를 믿고 기다리시는 은혜에 잠잠히 머무르며 하나님을 근심케 해 드리는 일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2:9~11 ⁹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¹⁰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¹¹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Story | 소망사랑방

특별한 통로

글 김지혜 목사·오지웅 전도사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셋째 주일은 교회마다 장애인주일로 지킵니다. 소망교회에서도 지난 4월 16일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공감+플러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축복하고 화합하는 취지에서 소망의 딸에 다양한 부스 활동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감수성 테스트를 통해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편견’은 빼고 (-), 서로를 향한 ‘공감’과 ‘감사’를 더한다(+)는 의미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직접 쓴 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 드린 3부 예배 봉헌 순서에는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소망부에서 연합하여 드린 예배에서 김영규 목사님은 ‘공감+’의 의미를 일깨우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교사들이 준비한 연극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Brass(관현악기)로 구성된 리라밴드의 축하 공연은 어깨가 절로 들쭉여지는 흥이 넘치는 시간이었고, 이날 소망의 성도들이 보내 주신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인해 장애인들은 그 누구보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을 보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세워 가는 예배 공동체 소망부는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제직회로 개편되어 세 개의 부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소망1부가 새로 신설되었고, 청년을 위한 소망2부, 장년을 위한 소망3부로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와 장애의 특성에 맞춰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교육을 진행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현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넘쳐흐릅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섬기시는 교사와 봉사자들이 오히려 감격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이 다릅니다. 외모, 성별, 나이, 성격,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 서로의 다름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이 다름을 틀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 속에 '특별함'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 특별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거룩하고 풍성하게 세워 가십니다.** 장애인의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고 배척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시고, 함께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장애^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거리끼거나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 주신 사랑을 나누게 하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며 우리는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2023년 장애인주일, 서로를 향한 끊이지 않는 기도와 격려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날이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었요”

(골 1:3~4)

11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6/11~17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시 71:14)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욥기 2:11~13

월요일

오늘의 찬송 415 십자가 그늘 아래

말씀 속으로

- 11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는 말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When Job's three friends, Eliphaz the Temanite, Bildad the Shuhite and Zophar the Naamathite, heard about all the troubles that had come upon him, they set out from their homes and met together by agreement to go and sympathize with him and comfort him.

- 12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When they saw him from a distance, they could hardly recognize him; they began to weep aloud, and they tore their robes and sprinkled dust on their heads.

- 13 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Then they sat on the ground with him for seven days and seven nights, No one said a word to him, because they saw how great his suffering wa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11).

몸뚱이 하나 성한 곳 없는, 말 그대로 알몸이 된 욥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데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이들이 방문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동안은 원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공격에도 끝내 굴하지 않은 욥의 모습이 부각되었다면, 이곳에서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자 찾아온 세 친구가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극한의 고난 중에도 침묵을 지켜온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방문이 이루어진 후부터는 ‘입을 열었다’는 구절이 뒤따릅니다(3:1). 과연 네 사람 서로 간에 어떤 변론이 있었는지 주목 되는 가운데 먼저는 욥을 위로한 세 친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인간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12~13).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 내어 울면서 겹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썼다.”(12절)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는 행위는 극한의 애통함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세 친구의 눈에 들어온 욥의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었다는 셈입니다. 정도를 가리켜 성경은 친구들이 눈을 들어 멀리서 보았을 때에 욥 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이즈음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멀리서 욥을 바라본 친구들의 눈에 욥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과 일치하였다면, 과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을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마냥 슬픔에 겨워 주저앉았을지 혹은 욥의 시들어져 가는 믿음을 복돋아 주었을지는 상상에 맡길 뿐입니다. 아무쪼록 고통당하는 욥 곁에서 밤낮 칠 일을 함께하며 위로하는 친구들의 마음은 분명 정성이었지만, 이후로 펼쳐지는 변론을 살펴볼 때 욥의 아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친구들이 보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욥의 세 친구 방문 이야기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가족 혹은 이웃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는 어떤 말을 건네어 줍니까?
2.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한없이 기다리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시지만, 욥의 친구는 칠 일을 위로하고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1:5~8,12 ⁵ 주님,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 왔습니다. ⁶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⁷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⁸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¹²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3

역대상 1:1~4

화요일

오늘의 찬송 208 내 주의 나라와

 말씀 속으로

- 1 아담, 셋, 에노스,
Adam, Seth, Enosh,
- 2 게난, 마할랄렐, 야렛,
Kenan, Mahalalel, Jared,
- 3 에녹, 므두셀라, 라멕,
Enoch, Methuselah, Lamech,
- 4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Noah, The sons of Noah: Shem, Ham and Japheth.

1.4 샘, 야벳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가리어 준 행위를 통해
샘은 장자의 축복을, 야
벳은 이룸대로 창대하
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다(창 9:23-27).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아담을 필두로 한 족보가 나열됩니다(1).

저자 미상으로 알려진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의 유다 공동체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함에 따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들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당장에 살 집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크나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백성의 마음이 하나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다윗 가문을 왕조로 하는 유다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신 또 하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지도자와 백성의 분열된 마음을 합하는 일에 쓰임받은 학개처럼,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며 공동체를 독려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 시작에 첫 인류 ‘아담’이 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유다 백성의 회복을 넘어 열방의 구원을 노래하는 역대기가 펼쳐집니다.

2. 아담과 노아의 시대에 이르는 은혜가 상기됩니다(2~4).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역대상의 족보는 일명 시험거리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끈기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주의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족보가 기록된 목적과, 족보를 통하여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역대기 저자에게는 귀환 공동체를 격려하는 일이 우선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순종을 대비시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족보는 ‘아담’을 시작으로 크게는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네 시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시대에는 아담을 포함한 9명의 조상이 소개되고,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 ‘셋’이 아담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이렇듯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역대상의 족보는 ‘노아’의 등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중에는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되고, 서로에게 하나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비추어 맡겨 주신 일을 감당할 때 나는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지 돌아봅시다.
2. 역대기 저자는 믿음과 불순종의 역사,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번갈아 기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차원으로 인도해 갑니다.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나, 가정, 교회, 이 땅 안에 은혜에 대한 기쁨이 샘솟기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당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7:3~6 ³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⁵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⁶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4

역대상 1:5~27

수요일

오늘의 찬송 89 사론의 꽃 예수

말씀 속으로

- 5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The sons of Japheth: Gomer, Magog, Madai, Javan, Tubal, Meshech and Tiras.

- 6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The sons of Gomer: Ashkenaz, Riphath and Togarmah.

- 7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The sons of Javan: Elishah, Tarshish, the Kittim and the Rodanim.

- 8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The sons of Ham: Cush, Mizraim, Put and Canaan.

- 9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이마와 삽드가요
라이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The sons of Cush: Seba, Havilah, Sabta, Raamah and Sabteca.
The sons of Raamah: Sheba and Dedan.

10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Cush was the father of Nimrod, who grew to be a mighty warrior on earth.

11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두힘과

Mizraim was the father of the Ludites, Anamites, Lehabites, Naphtuhites,

12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Pathrusites, Casluhites (from whom the Philistines came) and Caphtorites.

13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헛을 낳고

Canaan was the father of Sidon his firstborn, and of the Hittites,

14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Jebusites, Amorites, Girschites,

15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Hivites, Arkites, Sinites,

1:10

'니므롯은 '반역하자'는 동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므롯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물이다. 성경은 이후 니므롯의 후손을 소개하지 않는다.

1:14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 표할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다.

16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Arvadites, Zemarites and Hamathites.

17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앓수르와 아르박삿과 룿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The sons of Shem: Elam, Asshur, Arphaxad, Lud and Aram.

The sons of Aram : Uz, Hul, Gether and Meshech.

18 아르박삿은 셸라를 낳고 셸라는 에벨을 낳고

Arphaxad was the father of Shelah, and Shelah the father of Eber.

19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때에 땅이 나뉘었음이었도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욱단이며

Two sons were born to Eber: One was named Peleg, because in his time the earth was divided; his brother was named Joktan.

20 욱단이 알모닷과 셸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Joktan was the father of Almodad, Sheleph, Hazarmaveth, Jerah,

21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Hadoram, Uzal, Diklah,

22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Obal, Abimael, Sheba,

23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욱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Ophir, Havilah and Jobab. All these were sons of Joktan,

24 셈, 아르박삿, 셸라,

Shem, Arphaxad, Shelah,

25 에벨, 벨렉, 르우,

Eber, Peleg, Reu,

26 스룩, 나홀, 데라,

Serug, Nahor, Terah

27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and Abram (that is, Abraha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배열의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5~16).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시대적인 사명 앞에 선 귀환 공동체에게 과거를 회상시키고 계셨습니다. 구불구불 온전치 못한 발걸음으로 걸어온 사람의 길을 구원의 길로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는 반문을 던지시며, 이스라엘의 '주'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마주하면서도 소망 중에 하나님을 붙들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함께합니다. 그 마음이 죄로 얼룩진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 인도해 줍니다. 이에 역대기 저자는 족보를 써 내려가며 인간의 과오를 숨기거나 미화시키기보다 기록에 남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은 족보를 기술하는 흐름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셈, 함, 야벳 순으로 노아의 아들을 호명한 4절과 달리 5-27절은 야벳, 함, 셈의 순으로 언급합니다. 중요한 인물을 뒤에 배치하여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인 '아브라함'과 잇닿게 하며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한 것입니다.

2. 새로운 역사에는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17~27).

본 단락은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주목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5-23절에 걸쳐서 셈, 함, 야벳의 후손 70명이 나열되는 흐름은 모든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로 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성경에서 종종 '7'은 완전을 가리키는 까닭인데, 이와 유사하게 24-27절에는 셈에서 아브람 곧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열 명의 조상이 언급됩니다. 새로움을 의미하는 숫자 '10'이 열 사람의 조상을 기록한 데에 새겨짐으로써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회고시킨 셈입니다. 이때에 역대기 저자는 '아브람', '아브라함' 즉 동일한 인물의 서로 다른 이름을 적으며 약속대로 이삭을 안겨 주신 여호와와의 신실함을 노래합니다. 백 세에 아들을 얻은 것과 같은 기적이 귀환 공동체에게도 함께할 것이니 믿음의 행보를 이어 가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노아의 자손 '셈'에서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실패하는 인간에 대비되는 여호와와의 신실한 은혜를 극대화시킵니다. 배열 하나도 세밀하게 고려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2. 유다 공동체가 '아브람 곧 아브라함'의 구절을 읽으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상상해 봅시다. 이 구절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7:22~26 ²²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²³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²⁴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²⁵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²⁶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5

역대상 1:28~34

목요일

오늘의 찬송 38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말씀 속으로

28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The sons of Abraham: Isaac and Ishmael.

29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웃이요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These were their descendants: Nebaioth the firstborn of Ishmael, Kedar, Adbeel, Mibsam,

30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닷과 테마와

Mishma, Dumah, Massa, Hadad, Tema,

31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Jetur, Naphish and Kedemah. These were the sons of Ishmael.

32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욱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 이요

The sons born to Keturah, Abraham's concubine: Zimran, Jokshan, Medan, Midian, Ishbak and Shuah. The sons of Jokshan: Sheba and Dedan.

33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The sons of Midian: Ephah, Epher, Hanoah, Abida and Eldaah. All these were descendants of Keturah.

34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이더라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The sons of Isaac: Esau and Israe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28~31).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이 나열된 후에 아브라함 족보가 이어져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노아를 부르시듯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창 12:2) 어려움 중에 있는 귀환 공동체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은 마음을 떨리게 했을 법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 지금의 자신들을 존재케 한 현실을 되뇌었는지도 모릅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소개하는 구절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순으로 배열하지만, 후손의 족보는 ‘이스마엘과 이삭’ 순으로 기술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삭의 후손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는 한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즉 믿음이 있어도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실수에는 저마다의 대가가 지불된다는 가르침입니다.

2.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32~34).

익히 알고 있듯이 이스마엘은 본처 사라가 아닌 첩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본 단락은 하갈 외에 또 다른 소실 ‘그두라’의 존재를 밝힙니다. 그녀를 설명하고자 학자들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하지만, 이곳을 제외하고는 기록이 전무후무하다는 점에서 정확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그두라의 정체체를 다루는 시도에서 벗어나 그녀의 이름이 삽입된 이유를 아브라함의 근심과 연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백 세에 겨우 얻은 이삭 하나를 보며 아브라함이 염려했고, 결국 첩 그두라를 통해 자손을 이어 가며 큰 민족을 이루고자 했다는 추측입니다. 이 이야기는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게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깨달음을 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을 바라보도록 이끌었을 듯합니다. 약속대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예서와 이스라엘의 족보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소망을 안겨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함을 기록하며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적어 봅시다.
2.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급한 언행을 따라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2:8~11 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연자가 되어 주겠다. ⁹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 둘 수 있는 분별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¹⁰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¹¹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6

—
금요일

역대상 1:35~54

오늘의 찬송 94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씀 속으로

35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
라요

The sons of Esau: Eliphaz, Reuel, Jeush, Jalam and Korah.

36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담나와 아말렉이요

The sons of Eliphaz: Teman, Omar, Zepho, Gatam and Kenaz;
by Timna: Amalek.

37 르우엘의 아들은 나हत과 세라와 삼마와 밋시요

The sons of Reuel: Nahath, Zerah, Shammah and Mizzah.

38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
과 디산이요

The sons of Seir: Lotan, Shobal, Zibeon, Anah, Dishon, Ezer
and Dishan.

39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담나요

The sons of Lotan: Hori and Homam, Timna was Lotan's sister.

40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
브온의 아들은 아아와 아나요

The sons of Shobal: Alvan, Manahath, Ebal, Shepho and
Onam. The sons of Zibeon: Aiah and Anah.

41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The son of Anah: Dishon. The sons of Dishon: Hemdan,
Eshban, Ithran and Keran.

42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The sons of Ezer: Bilhan, Zaavan and Akan. The sons of
Dishan : Uz and Aran.

43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단하
바이며

These were the kings who reigned in Edom before any
Israelite king reigned : Bela son of Beor, whose city was named
Dinhabah.

44 벨라가 죽으매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밤이 대신하여 왕이 되
고

When Bela died, Jobab son of Zerah from Bozrah succeeded
him as king.

- 45 요밥이 죽으매 데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When Jobab died, Husham from the land of the Temanites succeeded him as king.

- 46 후삼이 죽으매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 이며

When Husham died, Hadad son of Bedad, who defeated Midian in the country of Moab, succeeded him as king. His city was named Avith.

- 47 하닷이 죽으매 마스레가의 사믈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When Hadad died, Samlah from Masrekah succeeded him as king.

- 48 사믈라가 죽으매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When Samlah died, Shaul from Rehoboth on the river succeeded him as king.

- 49 사울이 죽으매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When Shaul died, Baal-Hanan son of Acbor succeeded him as king.

50 비알하난이 죽으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므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When Baal-Hanan died, Hadad succeeded him as king. His city was named Pau, and his wife's name was Mehetabel daughter of Matred, the daughter of Me-Zahab.

51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담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벳 족장과

Hadad also died. The chiefs of Edom were: Timna, Alvah, Jetheth,

52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Oholibamah, Elah, Pinon,

53 그나스 족장과 데만 족장과 밍살 족장과

Kenaz, Teman, Mibzar,

54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Magdiel and Iram. These were the chiefs of Edo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하나님 안에서 변성이 참됩니다(35~42).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판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후 야곱은 속임을 행한 대가로 고생을 하게 되고, 고생 끝에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로 흘러가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와 달리 장자권을 판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림돌이 되는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이에 역대기 저자는 에서의 후손을 앞서 기술하며 뒤에 나올 이스라엘 기업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흔히 ‘에돔 족속’이라고 불리는 에서의 후손은 에서의 아들 한 부류와(35~37절), 본래 에돔 땅에 거주한 세일 족속으로 구성되는데(38~42절), 에서의 후손이 세일 족속을 공격하면서 통합을 이루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돔 족속은 나름대로 확장되었지만 그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등장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2. 결말을 보면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43~54).

흥미롭게도 본 단락은 에돔 땅을 통치한 ‘지도자’에 주목합니다. 그 내용이 43~50절은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51~54절은 족장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왕’에서 ‘족장’으로의 변화는 왕권을 기반으로 한 통치 체제가 무너지고 족장의 시대가 시작된 사실을 암시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결말을 보여 줍니다. 한마디로 만왕의 왕을 거스리는 자는 그 힘이 아무리 흥왕할지라도 결국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법칙을 이야기한 셈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자 역대기 저자는 다윗 가문으로 이어지는 왕을 소개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에돔 족속의 왕을 거론하는 과정에서는 ‘죽으매’, ‘죽으매’, ‘죽으매’를 연발하며 불의한 힘의 결말을 강조합니다. 이후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자의 후손이 소개되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미래는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고자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과 맞서는 불의한 세력의 결말을 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라가 번성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끝을 보면 시작을 알고, 열매를 보면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 안에 바르게 고치고 세워져야 할 생각과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7:10~14,42~43 ¹⁰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¹¹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¹²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¹³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¹⁴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얽어 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⁴²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⁴³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7

욥기 3:1~19

토요일

오늘의 찬송 374 나의 믿음 약할 때

말씀 속으로

1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After this, Job opened his mouth and cursed the day of his birth,

2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He said:

3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May the day of my birth perish, and the night it was said, ‘A boy is born!’

4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That day-may it turn to darkness; may God above not care about it; may no light shine upon it,

-
- 5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다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다면,

May darkness and deep shadow claim it once more; may a
cloud settle over it; may blackness overwhelm its light,

- 6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That night-may thick darkness seize it; may it not be
included among the days of the year nor be entered in any
of the months.

- 7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다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May that night be barren; may no shout of joy be heard in it,

- 8 날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
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다면,

May those who curse days curse that day, those who are ready
to rouse Leviathan,

- 9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
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May its morning stars become dark; may it wait for daylight in
vain and not see the first rays of dawn,

3:8 리워야단
악어로 볼 수도 있음

- 10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for it did not shut the doors of the womb on me to hide trouble from my eyes.

- 11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Why did I not perish at birth, and die as I came from the womb?

- 12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Why were there knees to receive me and breasts that I might be nursed?

- 13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For now I would be lying down in peace; I would be asleep and at rest

- 14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with kings and counselors of the earth, who built for themselves places now lying in ruins,

15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with rulers who had gold, who filled their houses with silver.

16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Or why was I not hidden in the ground like a stillborn child,
like an infant who never saw the light of day?

17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쉬
을 얻으며

There the wicked cease from turmoil, and there the weary are
at rest.

18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
를 듣지 아니하며

Captives also enjoy their ease; they no longer hear the slave
driver's shout.

19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
느니라

The small and the great are there, and the slave is freed from
his mast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기독교는 고난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1~12).

살갓을 짓누르는 재앙이 더 이상 욥을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가 입을 열게 되고 비극적인 탄식이 우러나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3절) 욥이 내뱉은 첫마디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단지 태어난 사건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의 질서에 저항을 던졌다는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날이, 아니 이전부터 이 땅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는 한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을 거냐!” 아내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지킨 욥이 이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낮과 밤의 경계를 만드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저항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강한 저항 이면에서 우리는 끝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2.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13~19).

호화스런 재산에 보기만 해도 든든한 일곱 자식을 전부 잃고, 이제는 피부병이 온몸을 덮어 사는 일 자체가 고역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할 때는 사는 것이 복이고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숨쉬는 일조차 버거운 날에는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단 하나 “죽음”, “죽음”, “죽음”만을 노래하는 욥의 쓰디쓴 탄식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정처 없이 헤매는 사탄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무덤을 찾아 떠도는 상징적인 행위 안에서 생명의 시작과 끝은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진리를 터득했을 욥이 상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1:12),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2:6). 동방의 가장 부자로 칭송받을 때나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알몸이 된 중에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믿음. 이것을 자라나게 하고자 하나님이 때론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땅의 모든 짐을 지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고난 중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봅시다.

2.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9:16~17,29~30 ¹⁶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공허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¹⁷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²⁹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³⁰ 그 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리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이스라엘 건국의 첫 정착지 <리손 레 짜온>

글 홍성민 (부목사)

6개월 동안 연재한 이스라엘 소개를 마치며 마지막 내용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다. 수천 년 고난의 역사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국가를 향한 열망으로 이루어 낸 이스라엘 건국의 첫 현장에 대한 소개가 내 마음을 이끈다.

2007년의 어느 날 히브리대학교 수업과 숙제를 마쳤다.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다. 저녁에 O목 사님이 숙소로 돌아오셨는데, 오늘은 '리손 레 짜온^{Rishon Le-Zion}'을 다녀오셨다고 한다. "그곳이 어딘가요?" 수도 텔아비브 남쪽 약 12km 지점에 위치한 곳이다.

1881년에 기적 같은 사건이 하나 발생한다. 러시아에서 엄청난 유대인 학살과 핍박이 발생하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미국으로 떠난다. 그런데 약 18명의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이민하여 정착하게 된다. 바로 '리손 레 짜온' 지역이다. 모레밭에 없는 황량한 땅, 이 땅에 18명의 사람이 최초로 정착한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첫 시작이고, 이스라엘 국가 생성의 첫 시발점이다. 이 지역은 오늘날 25만 명 이상이 사는 마을이 되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성경에서 가져왔다.

이사야 41장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יִישׁוּב יְרִשׁוֹן)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리손 레 짜온'을 직역해 보면, "시온의 첫 번째" 정도가 된다. 아마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이 자신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믿은 것 같다. 그리고 마을 이름을 "시온에서의 첫째" 도시라고 짓는다. 당시 모레 토양과 물 부족은 커다란 난제였고, 더더욱 이들은 농업 경험이 없었다. 이들은 먼저 우물을 깊이 파고 수개월 만에 물을 찾아냈다.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어서 그 우물에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라는 구절(창 26:32)을 새겨 놓았다. 대장 장이를 통해 철제 농기구를 만들고 밀과 포도 재배에도 성공하게 된다.

정착 유대인들의 인구는 1886년에 300여명으로 증가한다. 지난 4월호에 소개한 ‘벤 예후다란 사람이 1882년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현대 히브리어를 재생하는 노력이 함께 시작된다. 마참내 리손 레 짜온에 최초로 히브리어로만 가르치는 현대식 학교가 설립된다. 그 학교는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1898년에는 세계 최초의 히브리어 유치원도 설립된다.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성적표를 받고, 히브리어로 수학을 배우고, 히브리어로 노래를 부르고, 히브리어로 졸업장을 받았다. 그 결과 죽은 언어였던 히브리어가 기적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첫 정착민들에게는 여러 고민들이 있었다. 나라와 민족을 세운다는 것은 백성을 하나로 만드는 정체성 작업이며 이스라엘의 문화와 정신을 살리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국가와 국기를 만드는 작업이 이어졌다. 이스라엘의 국가는 ‘하티크바’ 곧 ‘희망’이라는 제목이다. 임베르^{Naphtali Herz Imber, 1856-1909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국가의 가사를 썼다. 그는 시인이자 시온주의자로, 역시 1882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이 국가를 듣는 이스라엘 국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눈물이 샘솟곤 한다.

가슴 깊은 곳에서
동방을 향하여
시온을 바라보면서
유대의 영혼이 동경하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하티크바〉 가사 중에서

이들은 국기도 만든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본 적이 있는가? 매우 단순하다. 첫 정착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히브리어 교육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국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들은 ‘기도’를 떠올렸다고 한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몸에 두르는 종교적인 옷인 ‘탈리트’가 있다. 교사들은 탈리트를 세로로 세우고, 그 중앙에 다윗의 별을 바느질해 붙여 넣었다. 이후 시온주의 국제 대회가 열렸는데, 교사들이 자신들이 만든 기를 가져갔고, 그것이 유대인들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국기로 확정되었다.

리손 레 짜온이라는 첫 정착지에서, 히브리어 언어와 국가와 국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탈리트를 쓰고 기도하는 민족, 이스라엘! 어찌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탄생된 나라가 아닐까?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한다.

18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6/18~24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시 119:114)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9

욥기 3:20~26

월요일

오늘의 찬송 363 내가 깊은 곳에서

말씀 속으로

20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Why is light given to those in misery, and life to the bitter of soul,

21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to those who long for death that does not come, who search for it more than for hidden treasure,

22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who are filled with gladness and rejoice when they reach the grave?

23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Why is life given to a man whose way is hidden, whom God has hedged in?

24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For sighing comes to me instead of food; my groans pour out like water.

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What I feared has come upon me; what I dreaded has happened to me.

26 나에게에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I have no peace, no quietness; I have no rest, but only turmoi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를 살립니다(20~23).

세 친구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장에 앞서 3장은 욥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혼돈’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리위야단’까지 소환하며 욥은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듭니다(3:8). 한편으로 1~2장만 해도 그가 의인이라는 판결에 동의를 표하게 했다면, 갑작스레 변화된 심정은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진짜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이란 땅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도 됩니다. 살아가야 하는 길이 아득한 중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도리어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저항하다 못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가 되려고 달려드는 욥의 발언을 잠잠히 듣고 또 들으시며 기다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욥의 말을 찬미와 경외의 언어로 회복시켜 가고자 합니다.

2. 욥은 예배를 통해 채움받으며 살아왔습니다(24~26).

3장 내내 저주의 말이 이어지는 중에 말미에 등장하는 ‘나는’, ‘내가’라는 표현은 황폐한 인생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욥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해 줍니다. 한마디로 욥 스스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단계에 이른 셈입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26절) 이렇듯 욥기서는 욥이 겪고 있는 상황에 독자를 초대하며 공감을 이끄는가 하면, 놀랍게도 그 사이에 원망과 불안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중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두려움이 빛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두 눈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욥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빛과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었지만(1~2장), 예배가 끊긴 지금에 이르러서는 저주만이 따를 뿐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욥기서를 묵상하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욥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그날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해 봅시다.
2. 욥의 삶에 예배가 끊긴 이후로는 그에게서 저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흐름을 살피며 예배의 능력을 묵상해 봅시다.



목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6:1~7 ¹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²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³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 올 때에, 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⁵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공훈이 많으신 분이시다. ⁶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 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⁷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0

역대상 2:1~17

화요일

오늘의 찬송 331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말씀 속으로

- 1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과

These were the sons of Israel: Reuben, Simeon, Levi, Judah, Issachar, Zebulun,

- 2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Dan, Joseph, Benjamin, Naphtali, Gad and Asher.

- 3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셸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 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The sons of Judah: Er, Onan and Shelah. These three were born to him by a Canaanite woman, the daughter of Shua. Er, Judah's firstborn, was wicked in the LORD's sight; so the LORD put him to death.

- 4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Tamar, Judah's daughter-in-law, bore him Perez and Zerah. Judah had five sons in all.

5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The sons of Perez: Hezron and Hamul,

6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The sons of Zerah: Zimri, Ethan, Heman, Calcol and Darda - five in all.

7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The son of Carmi: Achar, who brought trouble on Israel by violating the ban on taking devoted things.

8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The son of Ethan: Azariah.

9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므엘과 람과 글루베라

The sons born to Hezron were: Jerahmeel, Ram and Caleb.

10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Ram was the father of Amminadab, and Amminadab the father of Nahshon, the leader of the people of Judah.

2:4

유다는 머느리 다말과의 근친상간을 범하였다. 그러나 그중에는 과부의 생명을 보호하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는 입장도 따른다. 즉 본래 다말은 유다의 만아들 에르의 아내였으나 에르가 후사 없이 죽고 만 까닭에 동생 오난이 다말을 맞아들여 형의 후손을 이어 주어야 했다. 그러나 오난이 수혼법 따르기를 거절하여 죽게 되자 다말은 유다에게 하나 남은 막내 아들 셸라마저 죽게될까 염려한다. 이에 그녀가 창기로 분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에게로 들어가고 그 사이에서 쌍둥이 형 베레스와 동생 세라가 태어난다. 베레스를 통하여 다윗 왕의 가계가 탄생한다.

2:7 갈미

7절의 '갈미'는 6절에 '갈골'이라고 소개된 인물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그의 아들 '아갈'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당시 하나님께 드린 전리품을 훔쳤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시련을 겪게 된다(수 7장).

20

—

화

11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Nahshon was the father of Salmon, Salmon the father of Boaz,

12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Boaz the father of Obed and Obed the father of Jesse.

13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Jesse was the father of Eliab his firstborn; the second son was Abinadab, the third Shimea,

14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the fourth Nethanel, the fifth Raddai,

15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the sixth Ozem and the seventh David.

16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Their sisters were Zeruiah and Abigail. Zeruiah's three sons were Abishai, Joab and Asahel.

17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텔이었던라

Abigail was the mother of Amasa, whose father was Jether the
Ishmaelite.

2:15 일곱째로 다윗을

사무엘상에 의하면 다
윗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이다(17:12-14). 차
이에 관한 이유는 분명
하지 않지만 어린 나이
에 죽은 이새의 아들을
염두에 두고 사무엘서
가 기록되었다는 해석
이 있다.

2:16 아버새와 요압

스루아의 장자는 요압
이지만 아버새가 먼저
나온다. 요압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
으킨 아도니아를 도운
죄를 묻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다(왕상 1:7).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1~8).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어 ‘이스라엘’ 시대가 떠오릅니다(1절). 본래 야곱이라 불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걸맞게 성경은 그의 열두 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지파를 소개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안에서 성취된 현실을 나타냅니다. 이때에 역대기 저자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족보를 토대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나열한 듯 보이는데, 유독 ‘단’ 지파의 위치가 독특한 행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연류된 단 지파를 알리며 귀환 공동체가 근원적으로 하나되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고자 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 왕조를 근간으로 하는 왕국을 세우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믿음에 뿌리내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친 셈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모두를 위한 역사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섭리를 보이십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 네 번째 ‘유다’였습니다.

2. 역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또한 역사를 초월하십니다(9~17).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도 유한한 피조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 선택된 유다와 그의 후손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역사가 나타납니다(2:3). 이러한 흐름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후손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역대기 저자는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을 살상 언급한 후에 그의 두 번째 아들 ‘람’에 집중하는데 램의 계보를 통하여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의 탄생 소식이 들려옵니다(15절).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까지 램의 족보에는 살마와 기생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가 있었고,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룯 사이에서 나온 ‘오벳’이 알려지기도 합니다(11~12절).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하신 율법이 지켜지지 않은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형제들 간의 피바람이 가득했던 다윗 왕조에도 함께합니다(16~17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107쪽의 설명과 함께 ‘유다’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주목하시는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2. 묵상과 함께 빈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겸손한 하루를 보냅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4:5~9 ⁵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⁶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⁷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⁸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⁹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1

수요일

역대상 2:18~24

오늘의 찬송 92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말씀 속으로

- 18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Caleb son of Hezron had children by his wife Azubah (and by Jerioth). These were her sons: Jeshar, Shobab and Ardon.

- 19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홀을 낳아 주었고

When Azubah died, Caleb married Ephrath, who bore him Hur.

- 20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렐을 낳았더라

Hur was the father of Uri, and Uri the father of Bezalel.

- 21 그 후에 헤스론이 육십 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Later, Hezron lay with the daughter of Makir the father of Gilead (he had married her when he was sixty years old), and she bore him Segub.

22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스물세 성읍을 가졌더니

Segub was the father of Jair, who controlled twenty-three towns in Gilead.

23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But Geshur and Aram captured Havvoth Jair, as well as Kenath with its surrounding settlements - sixty towns.) All these were descendants of Makir the father of Gilead.

24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홀을 낳았으니 아스홀은 드고아의 아버지 지더라

After Hezron died in Caleb Ephrathah, Abijah the wife of Hezron bore him Ashhur the father of Tekoa.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공동체에는 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18~20).

2장 3~17절은 다윗의 가계에 초점을 두고 그의 조상을 알립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의 계보를 통하여 다윗의 탄생이 기록됩니다. 이어지는 본 단락은 헤스론의 막내 아들 ‘글루베’, 아마도 ‘갈렙’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후손을 짧게 나열합니다. 이후 갈렙의 후손에 관한 족보가 42~49절, 50~55절에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저자가 나뭇의 의도를 가지고 배열했다고 주장하며 ‘홀’과 ‘브살렐’에 주목합니다(19~20절). 홀은 출애굽 이후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을 맡은 자로 아말렉 전쟁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치켜들어 승리를 안긴 인물입니다(출 24:14; 출 17:10~12).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홀의 후손 브살렐은 성막 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합니다(출 31:2~3). 이렇듯 성경은 갈렙의 후손 중 두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며 유다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들에게 책임 의식을 일으킵니다.

2. 성경은 번성의 축복을 약속합니다(21~24).

갈렙의 후손이 잠시 소개되고, 성경은 다시 헤스론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헤스론이 육십 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21절) 흥미롭게도 역대기 저자는 헤스론의 장인을 가리켜 ‘길르앗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당시에 마길이라는 자가 가진 영향력을 표현합니다. 즉 헤스론의 장인이자 길르앗의 아버지라 불린 마길은 한 성읍을 대표할 만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후손들은 땅에서 번성하며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에서는 헤스론의 후손 중 ‘야일’이라는 자가 길르앗 땅의 스물세 성읍을 소유했다는 구절로 표현되며,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는 므낫세 지파의 땅까지 유다의 후손이 차지한 역사를 엿보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야일’을 유다의 후손이 아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인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역대기는 일차적으로 귀환한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2. 역대기는 유다 백성이 받은 번성의 축복을 상기시키며 황폐해진 고국을 새롭게 일구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나의 삶의 자리에도 자라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당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7:1~7 ¹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²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³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⁴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⁵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⁶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⁷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2

역대상 2:25~41

목요일

오늘의 찬송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말씀 속으로

25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므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The sons of Jerahmeel the firstborn of Hezron: Ram his firstborn, Bunah, Oren, Ozem and Ahijah.

26 여라므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Jerahmeel had another wife, whose name was Atarah; she was the mother of Onam.

27 여라므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The sons of Ram the firstborn of Jerahmeel: Maaz, Jamin and Eker.

28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The sons of Onam: Shammai and Jada. The sons of Shammai: Nadab and Abishur.

29 아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Abishur's wife was named Abihail, who bore him Ahban and Molid.

30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압바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The sons of Nadab: Seled and Appaim, Seled died without children.

31 압바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래요

The son of Appaim: Ishi, who was the father of Sheshan, Sheshan was the father of Ahlai.

32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텔과 요나단이라 예텔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The sons of Jada, Shammai's brother: Jether and Jonathan, Jether died without children.

33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므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The sons of Jonathan: Peleth and Zaza.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Jerahmeel.

2:31 세산의 아들 알래요
본래는 딸로 추정된다.

22

— 목

- 34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Sheshan had no sons-only daughters. He had an Egyptian servant named Jarha,

- 35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앓대를 낳고

Sheshan gave his daughter in marriage to his servant Jarha, and she bore him Attai,

- 36 앓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Attai was the father of Nathan, Nathan the father of Zabad,

- 37 사밧은 에블랄을 낳고 에블랄은 오벧을 낳고

Zabad the father of Ephlal, Ephlal the father of Obed,

- 38 오벧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고

Obed the father of Jehu, Jehu the father of Azariah,

- 39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Azariah the father of Helez, Helez the father of Eleasah,

40 엘르아사는 시스매를 낳고 시스매는 살룸을 낳고

Eleasah the father of Sismai, Sismai the father of Shallum,

41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Shallum the father of Jekamiah, and Jekamiah the father of Elishama,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헤스론의 장자 여라므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25~27).

2장 9절을 기점으로 2장의 내용이 점차 확장됩니다. 앞서서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 람의 족보가 나온 후에 갈렙의 자손이 짧게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람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을 만났고, 갈렙의 후손에서는 훌과 브살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헤스론의 장자 ‘여라므엘’이 등장하며 그의 가계가 소개되고자 합니다. 여라므엘의 족보상으로는 동생 람과 갈렙의 경우와 달리, 인상에 남을 만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가 헤스론의 장자인 것은 물론이고 고대 사회에서 장자가 가지는 축복된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다소 의미심장한 건 사실입니다. 아마도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죄와 구원이 공존하는 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여라므엘의 집안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28~41).

여라므엘의 족보가 본격적으로 기술되는 시점에서 흥미롭게도 26절은 그에게 함께한 ‘다른 아내’를 알립니다. ‘아다라’라 하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며 그녀를 호명한 것에서 나름의 의도가 엿보이는데, ‘삼매’라 하는 후손이 곧바로 언급됩니다(26,28절). ‘황폐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매의 등장을 통해서 사실상 여라므엘 집안의 밝지 않은 분위기를 암시합니다. 이에 수긍하는 듯 30절과 32절은 셀렛과 예텔 각각을 가리켜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말하며 말 그대로 쓰러져 가는 여라므엘 집안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들에 이어 아들은 없고 딸만 가진 세산은 이방의 사람, 그것도 애굽 출신의 종에게 딸을 내어 주어야 대를 잇게 됩니다(34절). 이처럼 여라므엘의 후손은 애를 쓰지 않고는 대를 이을 수 없는, 그야말로 황폐한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장자로 태어나 태생적으로 으뜸이 되는 위치에서 여라므엘은 형제에 비해 좋은 후손을 남기지 못합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우리 가정으로 세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여라므엘 집안이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우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4:1~6 ¹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²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³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⁴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⁵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⁶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यो,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3

—
금요일

역대상 2:42~55

오늘의 찬송 26 구세주를 아는 이들

 말씀 속으로

- 42 여라므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The sons of Caleb the brother of Jerahmeel: Mesha his firstborn, who was the father of Ziph, and his son Mareshah, who was the father of Hebron.

- 43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겔과 세마라

The sons of Hebron: Korah, Tappuah, Rekem and Shema.

- 44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겔은 삼매를 낳았고

Shema was the father of Raham, and Raham the father of Jorkeam, Rekem was the father of Shammai.

- 45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벨술의 아버지이며

The son of Shammai was Maon, and Maon was the father of Beth Zur.

46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Caleb's concubine Ephah was the mother of Haran, Moza and Gazez. Haran was the father of Gazez.

47 야대의 아들은 레겔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The sons of Jahdai: Regem, Jotham, Geshan, Pelet, Ephah and Shaaph.

48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Caleb's concubine Maacah was the mother of Sheber and Tirhanah.

49 또 맛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She also gave birth to Shaaph the father of Madmannah and to Sheva the father of Macbenah and Gibeah. Caleb's daughter was Acsah.

50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Caleb. The sons of Hur the firstborn of Ephrathah: Shobal the father of Kiriath Jearim,

51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벵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Salma the father of Bethlehem, and Hareph the father of Beth Gader.

52 기랏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므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The descendants of Shobal the father of Kiriath Jearim were: Haroeh, half the Manahathites,

53 기랏여아림 족속들은 이텔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and the clans of Kiriath Jearim: the Ithrites, Puthites, Shumathites and Mishraites. From these descended the Zorathites and Eshtaolites.

54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The descendants of Salma: Bethlehem, the Netophathites, Atroth Beth Joab, half the Manahathites, the Zorites,

55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
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and the clans of scribes who lived at Jabez: the Tirathites,
Shimeathites and Sucathites. These are the Kenites who came
from Hammath, the father of the house of Recab.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을 섬길 때 축복이 따릅니다(42~49).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후손이 잠시 언급되었습니다(2:18~20). 짧은 중에도 갈렙의 후손 홀과 브살렐의 등장은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를 일깨우며, 민족 앞에 놓인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마음을 모읍니다. 그 흐름이 갈렙의 후손을 다시금 소개하는 본 단락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헤브론의 아버지’, ‘기랴트야림의 아버지’, ‘베들레헬의 아버지’와도 같은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거나 딸을 애굽의 종에게 들여보내 대를 이어야 했던 여라브 엘 집안과는 다르게 갈렙의 후손 중에는 성읍을 창건하거나 성읍의 지도자로서 자리한 인물들이 배출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유다 왕으로 등극한 후, 7년 6개월이라는 통치기를 가진 헤브론 성읍이 갈렙 후손의 소유였다는 기록에서 하나님을 섬긴 집안의 믿음이 엿보입니다.

2.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50~55).

홀의 반복된 등장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의 후손에게 따라온 영예를 눈여겨보게 만드는데, 먼저는 다윗 왕과 더불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헬 성읍을 홀의 자손이 소유했다는 기록에 감탄하게 됩니다. 여기에 ‘서기관’, 그러니까 당대에 뛰어난 율법학자이자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크나큰 사명을 가진 인물이 나왔다는 흔적은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올린 조상 홀의 모습을 회상하게 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웠던 한 사람을 통하여 후대가 대대로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서는 민족이 살게 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들려줍니다. 귀환 공동체로 하여금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함께할지를 반문하고 있는 동일한 질문이 역대상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향하여 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도록 이끄십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2. 성경은 후손이 잘되고 땅이 번성하는 은혜 앞에서 의인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두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2:1~6 ¹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²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³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⁴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⁵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 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⁶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Then Eliphaz the Temanite replied:

- 2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싫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If someone ventures a word with you, will you be impatient?
But who can keep from speaking?”

- 3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Think how you have instructed many, how you have strengthened feeble hands,

- 4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Your words have supported those who stumbled; you have strengthened faltering knees,

- 5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But now trouble comes to you, and you are discouraged; it strikes you, and you are dismayed.

6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Should not your piety be your confidence and your blameless ways your hope?

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Consider now: Who, being innocent, has ever perished? Where were the upright ever destroyed?

8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As I have observed, those who plow evil and those who sow trouble reap it.

9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At the breath of God they are destroyed; at the blast of his anger they perish.

10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The lions may roar and growl, yet the teeth of the great lions are broken.

11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 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The lion perishes for lack of prey, and the cubs of the lioness are scatter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과 친구들 사이에 변론이 시작됩니다(1~6).

위문차 세 친구가 욥을 방문했습니다(2:11). 그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욥을 다독입니다. ‘데만’이 지혜로운 도시로 유명한 만큼 뜻밖의 고난에 처한 친구에게 어떤 말을 들려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잠잠히 이야기를 읽고 있으니 곁에서 함께 머무르며 위로하던 것과 달리 꽤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전해집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네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5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는 그토록 잘 격려하며 세워 주던 욥이, 정작 고난이 그의 것이 되었을 때 형편없다는 따끔한 충고를 던집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인생의 숙제 앞에서 너무도 당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침묵 가운데 잠잠히 거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2. 엘리바스는 당당했지만 겸손한 지혜는 갖추지 못합니다(7~11).

위로인지 훈계인지, 욥의 아내처럼 야유를 던지는 듯한 엘리바스의 말은 절정에 이릅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7절) 생전에 욥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였고 온전한 길 걷기를 소망으로 삼았다면 이토록 고난받을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반문이었습시다.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욥, 그것도 자신의 친구가 걸어온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하면 복을 받지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율법주의적 고난 이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통합니다. 이것이 악으로 심은 자는 결국 악을 거둔다고 주장하며, 기세등등한 사자와도 같았던 욥의 가문이 풍비박살 난 현실을 은연중에 꼬집은 이유입니다(8-11절). 이렇듯 엘리바스의 변론에는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피조물을 인정하는 자세가 엿보이지만, 질그릇을 보배롭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관한 이해는 안타깝게도 부재합니다. 그 사랑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감싸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는 타인의 고난을 이해할 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고입니다. 이 장면을 기록하며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욥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친구인 엘리바스가 부정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듬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4:8~10,14,22 ⁸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⁹ 귀를 지어 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빛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¹⁰ 못 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못 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¹⁴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²²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수피아여학교 윈스보로우홀 |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13

일제 강점기 수피아의 두 번째 교사로 사용된 '윈스보로우홀'은 전주신흥학교의 '리차드슨관'과 똑같이 스윈하트가 설계한 것으로 화강암 기초석 위에 붉은 벽돌로 미식 쌓기를 한 2층 건물이다. 미국 남장로교회 여신도들이 생일감사헌금을 모아 보내온 돈으로 1927년 지은 이 건물은, 모금을 주도했던 윈스보로우의 이름을 건물명으로 했다. '윈스보로우홀'이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수피아여학교의 '지정학교 인가' 때문이었다. 일제는 1922년 2월, 당시 사립학교들 가운데 총독부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재정의 요건을 갖춘 학교만을 5년제의 '고등보통학교'로 지정하여 우대한다는 내용의 '개정조선교육령'을 반포하였다. 이 법령의 근본 취지는 일본의 교육 제도를 조선에 적용시킨다는 것이었으나, 그때 10개의 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남장로교 선교부는 학교 전부를 총독부의 표준에 맞출 만큼의 여력이 없었다. 결국 선교부는 1923년 6월 연례회의에서 전주의 시흥학교와 광주의 수피아여학교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선교부는 신흥학교와 수피아여학교의 지정학교 인가를 위해 재정을 집중 배정하였고, 그 결과물의 하나가 바로 '윈스보로우홀'이다.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민음의 흔적을 찾아_한국의 기독교유적> 중 -

홍성찬(홍군)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들뱅이 www.hongsoon.net



by Hordern

25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6/25~7/1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 146:5)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욥기 4:12~21

월요일

오늘의 찬송 569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말씀 속으로

- 12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A word was secretly brought to me, my ears caught a whisper of it,

- 13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Amid disquieting dreams in the night, when deep sleep falls on men,

- 14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fear and trembling seized me and made all my bones shake,

- 15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뻗하였느니라
A spirit glided past my face, and the hair on my body stood on end,

- 16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It stopped, but I could not tell what it was. A form stood before my eyes, and I heard a hushed voice:

17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
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Can a mortal be more righteous than God? Can a man be more
pure than his Maker?

18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
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If God places no trust in his servants, if he charges his angels
with error,

19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how much more those who live in houses of clay, whose
foundations are in the dust, who are crushed more readily than
a moth!

20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Between dawn and dusk they are broken to pieces; unnoticed,
they perish forever.

21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Are not the cords of their tent pulled up, so that they die
without wisdo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12~17).

엘리바스의 충고는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서서 그 뜻을 음미하게 합니다. 언뜻 듣기에 순종에는 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이야기는 무미건조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피조물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제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까닭입니다. 아마도 엘리바스의 신앙고백은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탄생한 듯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든 고요한 밤중에 한 영이 스치듯이 지나가자 엘리바스의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뼈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형체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영의 움직임이 감지된 후, 위엄 있는 음성이 엘리바스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17절) 그는 분명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인물입니다.

2.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이십니다(18~21).

창조주 앞에 선 경험이 엘리바스를 지혜로운 자로 세우는 일에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조물과 질적으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였지만, 한없이 낮고 낮아지셔서 피조물을 찾아오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할 때, 사람은 고난 앞에서 너무도 쉽게 교리나 신념을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욱의 믿음과 그의 삶을 부정하는 데에 서슴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고뇌하고, 항거하고 분노하는 욱과 함께하십니다. 그 사랑이 욱을 새롭게 거듭나도록 이끌며 세상 속에서 진실로 지혜로운 자, 진실로 의로운 자로 세워 갑니다. 영의 임재는 경험했지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겸손히 서지 못한 엘리바스를 보며 마음 한편에 안타까움이 찾아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 엘리바스는 죄를 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엘리바스 같은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며, 날마다 나를 새롭게 이끄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3:5~6,10~11 ⁵ 내가 옛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깊이 생각합니다. ⁶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 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셀라) ¹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¹¹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These were the sons of David born to him in Hebron: The firstborn was Amnon the son of Ahinoam of Jezreel; the second, Daniel the son of Abigail of Carmel;

- 2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the third, Absalom the son of Maacah daughter of Talmai king of Geshur; the fourth, Adonijah the son of Haggith;

- 3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the fifth, Shephatiah the son of Abital; and the sixth, Ithream, by his wife Eglah.

- 4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칠 년 육 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다스렸으며

These six were born to David in Hebron, where he reigned seven years and six months. David reigned in Jerusalem thirty-three years,

-
- 5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리하니 시므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and these were the children born to him there: Shammua, Shobab, Nathan and Solomon. These four were by Bathsheba daughter of Ammiel.

- 6 또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There were also Ibhar, Elishua, Eliphelet,

- 7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Nogah, Nepheg, Japhia,

- 8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Elishama, Eliada and Eliphelet - nine in all,

- 9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All these were the sons of David, besides his sons by his concubines. And Tamar was their sist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헤브론에서 난 다윗의 아들이 소개됩니다(1~4).

2장은 이스라엘 열두 아들 중 유다에 주목하며 다윗이 탄생하게 된 이력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곳 3장은 다윗을 기점으로 그의 후손을 기술하며 나름대로 2장과 3장 사이에 균형을 맞춥니다. 그중에서도 1~4절은 다윗의 40년 통치 기간 중에서 7년 6개월간을 머무른 ‘헤브론’ 지역이 소개되며 이곳에서 난 여섯 아들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소개와 달리(5~9절), 아들과 어머니가 짝을 이루어 언급되는 형태가 흥미롭기도 합니다. 한편, 헤브론에서 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 이름이 ‘평화’라는 뜻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역사를 남깁니다.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을 빌미로 형 암살을 살해했고, 이것이 시초가 되어 아버지 다윗에게도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이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역시 노년의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솔로몬 시대 숙청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왕상 1:1~10; 2:10~25).

2.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이 소개됩니다(5~9).

5절부터는 다윗의 통치 기간 33년을 함께한 예루살렘으로 배경이 전환되며, 예루살렘 태생의 아들들이 나열됩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족보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사무엘하 5장 13~16절을 참고했으리라고 추측되는데, ‘밧수바’ 곧 ‘밧세바’의 소생 중 솔로몬이 마지막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의 후손이 소개되며 다윗의 계승자로 왕위를 받게 된 솔로몬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의도가 솔로몬 이후의 아들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는 모친을 따로 소개하지 않는 형태로 구현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딸 ‘다말’은 다윗에게 있었을 또 다른 딸들을 짐작케 합니다(9절). 다말만이 다윗의 유일한 딸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왕족 이야기에 나온 이력을 가진 만큼 구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삼하 13장).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 40년 통치 기간을 가지며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자리매김한 다윗이지만 반역하는 아들을 둔 슬픔이 함께합니다. 영광 중에도 고난을 겪은 다윗의 삶을 되새겨보며 그의 족보가 주는 메시지를 기록해 봅시다.
-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를 기억케 하는 밧세바로부터 왕위가 계승되는 역사를 떠올리며 범죄를 행했을 때 다윗이 어땀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6:12~13 ¹²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¹³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스올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8

역대상 3:10~16

—
수요일

오늘의 찬송 546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 속으로

10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Solomon's son was Rehoboam, Abijah his son, Asa his son, Jehoshaphat his son,

11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Jehoram his son, Ahaziah his son, Joash his son,

12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답이요

Amaziah his son, Azariah his son, Jotham his son,

13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Ahaz his son, Hezekiah his son, Manasseh his son,

14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Amon his son, Josiah his son.

15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The sons of Josiah: Johanan the firstborn, Jehoiakim the second son, Zedekiah the third, Shallum the fourth.

16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The successors of Jehoiakim: Jehoiachin his son, and Zedekiah,

3:10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 북왕국 멸망 이후에 통치했던 왕을 열거한다. 북 이스라엘 왕은 거론되지 않고, 다윗 혈통의 왕에 집중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불순종과 참회의 역사가 반복됩니다(10~12).

역대기 저자의 관심이 ‘왕’의 계열로 축소되며 단락의 이름조차 ‘솔로몬 왕의 자손’이라고 명명됩니다. 성전 재건과 함께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동기부여를 하는 저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각 시대마다 성전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호람’이라고도 기록되는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며 우상 숭배를 벌였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리신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웃시아’라고도 불리는 ‘아사랴’ 왕은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을 구했지만 제사장이 분향하는 일을 집전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불순종과 참회의 길을 거듭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세를 모으도록 하였고, ‘요담’에 이르러서는 성전의 북쪽 문을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때마다 새겨 주고 계셨습니다.

2. 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어집니다(13~16).

안타깝게도 요담의 아들 ‘아하스’ 통치기에 이르러서는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릅니다. 아버지와 달리 그는 이방 신상을 성전에 들여오면서 최악의 평가를 받는 왕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놋뿔을 부수고 산당을 제거하는 등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가진 재물을 자랑하는 모습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질책을 받기도 하지만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 때는 도리어 아하스 시대로 돌아가며 성전이 공백기에 이르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때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앗수르가 멸망하는 대외적인 상황을 틈타 므낫세 다음의 ‘요시아’ 왕으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시키셨습니다. 서기관을 통하여 율법책이 발견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유월절 제사가 올려지며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고 있는 근원적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나, 가정, 교회와 이 땅 안에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2. ‘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며 암묵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구절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1:8~11 ⁸ 내 백성이,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⁹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¹⁰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 주겠다' 하였으나, ¹¹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17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The descendants of Jehoiachin the captive: Shealtiel his son,

18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Malkiram, Pedaiah, Shenazzar, Jekamiah, Hoshama and Nedabiah,

19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므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The sons of Pedaiah: Zerubbabel and Shimei, The sons of Zerubbabel: Meshullam and Hananiah, Shelomith was their sister,

20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
이요

There were also five others: Hashubah, Ohel, Berekiah, Hasadiah and Jushab-Hesed,

21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
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The descendants of Hananiah: Pelatiah and Jeshaiah, and the
sons of Rephaiah, of Arnan, of Obadiah and of Shecaniah,

22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
갈과 바리아와 느아라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The descendants of Shecaniah: Shemaiah and his sons:
Hattush, Igal, Bariah, Neariah and Shaphat - six in all,

23 느아라의 아들은 에료에내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
이요

The sons of Neariah: Elioenai, Hizkiah and Azrikam - three
in all,

24 에료에내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
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The sons of Elioenai: Hodaviah, Eliashib, Pelaiah, Akkub,
Johanah, Delaiah and Anani - seven in all,

3:19 브다야의 아들들
은 스투바벨과

역대기 저자는 스투바
벨의 부친으로 '브다야'
를 언급한다. 그러나 예
스라서에는 '스알디엘'
이 스투바벨의 부친으
로 소개된다(스 3:2). 이
러한 불일치에 관하여
학자들은 여러 입장을
보이는데, 스알디엘의
이른 죽음 때문에 동생
브다야가 형수와 결혼
하여 낳은 아들이 스투
바벨이라는 견해가 주
목받는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비전에는 세대 간의 연합이 요구됩니다(17~20).

3장은 다윗과 그 후손의 계보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중에서도 10~16절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된 솔로몬이 부각되고, 17~24절은 귀환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 스룹바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1성전을 완성한 솔로몬과 제2성전 건축을 주도한 스룹바벨이 주목받는 족보의 흐름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민족의 비전을 심어 주는 의도를 가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후손의 앞날을 생각하며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감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 단락은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 곧 포로 생활이 시작된 왕의 이름을 새기며, 이전의 역사를 교훈 삼으라는 가르침을 전하기도 합니다(17절). 그런가 하면 하나같이 회복, 기쁨, 은혜를 노래하는 뜻을 가진 스룹바벨 후손의 이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선 땅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2. 하나님의 은혜에 자녀의 삶이 함께해야 합니다(21~24).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후손들이 한 명, 한 명 나열됩니다. 그러면서 막을 내리는 3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왕위를 계승한 후손과, 다윗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 자손이 이어지는 역사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이상 승배를 벌이는 왕이 있었고, 열강의 치세 속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택하여 사는 왕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의 고비마다 새 길을 열어 가며 열방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와 의로우심을 만방에 드러내 보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에 먼저 초대되어 살아가는 자로 하여금 이전의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세대에 걸쳐 흐르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 이 땅 곳곳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2. 역대기 저자는 특별하게 선택된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새기며 거룩한 삶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6:9~11 ⁹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¹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¹¹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The descendants of Judah: Perez, Hezron, Carmi, Hur and Shobal.

- 2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매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Reaiah son of Shobal was the father of Jahath, and Jahath the father of Ahumai and Lahad. These were the clans of the Zorathites.

- 3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These were the sons of Etam: Jezreel, Ishma and Idbash. Their sister was named Hazzelelponi.

- 4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Penuel was the father of Gedor, and Ezer the father of Hushah.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Hur, the firstborn of Ephrathah and father of Bethlehem.

- 5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홀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Ashhur the father of Tekoa had two wives, Helah and Naarah.

6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이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Naarah bore him Ahuzzam, Hepher, Temeni and Haahashtari.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Naarah.

7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The sons of Helah: Zereth, Zohar, Ethnan,

8 고스는 아눅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
으며

and Koz, who was the father of Anub and Hazzobebah and of
the clans of Aharhel son of Harum,

9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
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
이었던더라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His mother had
named him Jabez, saying, "I gave birth to him in pain."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
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
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Jabez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Oh, that you would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 will be free from pain." And God
granted his request.

4:1 갈미

유다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는 흐름을 볼 때, 1절의 갈미는 '갈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인다(대상 2:18-20 참고).

4:2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소라 족속을 언급하는 구절이 2장 53-54절 에도 나온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소라 사람' 즉 '소라 족속은 소라라는 지역에 사는 거주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예비해 주십니다(1~8).

아담에서 시작하는 1~3장의 족보는 남유다 왕국을 통치한 다윗 가문 왕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어지는 4~8장은 바벨론 포로기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과 그 후손을 나열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된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에 관한 소개에 긴 지면이 할애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역할과 관련하여서 강조되고,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귀환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비중이 컸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한편 흥미롭게도 1~8절에 이르는 자손의 소개는 '성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라 사람', '에담 조상', '그들의 아버지', '드고아의 아버지', '베들레헴의 아버지' 같은 표현이 그 예입니다. 실명이 아닌 지역명을 기입하여 후손이 소개된 의미가 이후 아베스의 기도에 나타납니다.

2.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9~10).

성경을 통틀어 아베스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역대상 2장 55절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지역명 '아베스'에 비추어 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해 오곤 합니다. 1~8절에 걸쳐서 지역명이 등장하며 지역에 산 후손들을 소개하는 흐름과도 맞닿아집니다. 그렇다면 땅을 의인화하여 기록한 의미를 추측하게 되는데, 10절의 고백문이 일련의 답을 전해 주는 듯합니다. 즉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대로 유다 지파는 많은 성읍을 소유하며 살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며 근심 없게 해 달라는 간구대로 귀환 공동체의 대다수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맞닥뜨리게 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요청한 셈입니다. 이때에 이 성전과 관련된 솔로몬 왕과 지도자 스룹바벨에 이어 삽입된 기도문은 기도하는 신실한 삶을 가르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땅과 연결합니다. 지역을 넓혀 달라는 아베스의 고백을 따라 자손 대대로 번성하는 가정과 민족의 미래를 두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2. 9~10절의 기도문은 낙심과 절망 중에도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구의 제목을 올려 드십시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당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5:2,9~13 ²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⁹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¹⁰ 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리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움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¹¹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똑똑 떨어집니다. ¹²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어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¹³ 목장마다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힘과 권력, 재산과 재물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명예들로 인해 자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피조성과 연약함을 잊은 채,
거들먹거리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자리,
죄악 속에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연약한 인간의 자리,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오니

절망의 현실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단 일회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가며,

세상에 유익한 존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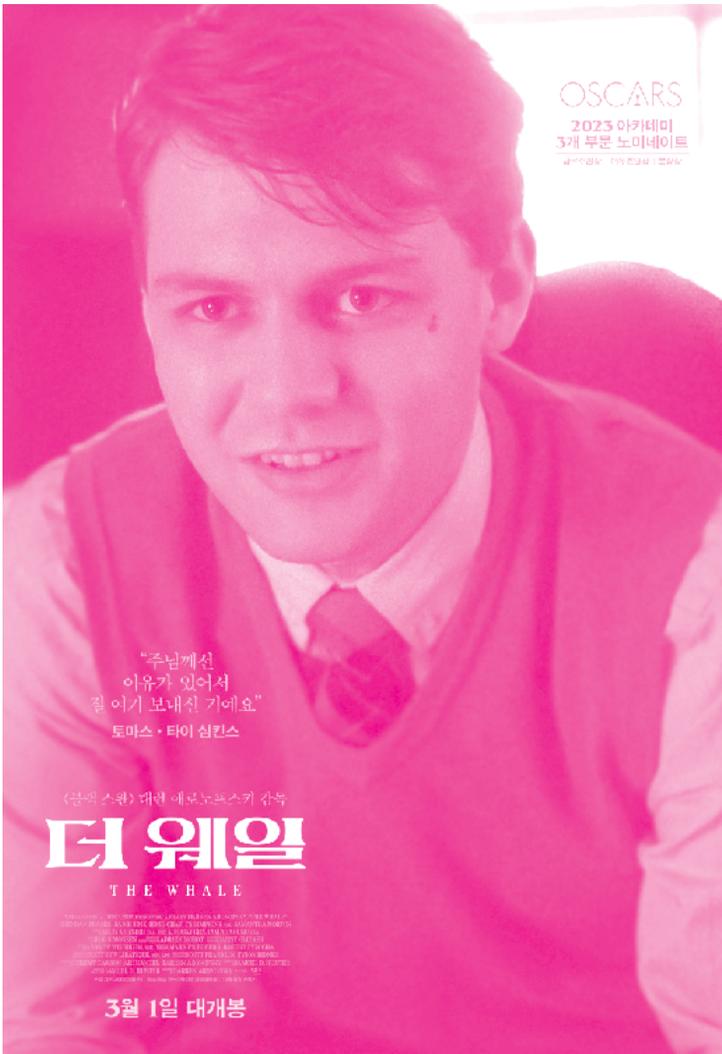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5.11(목) 새벽기도회 중에서

<더 웨일>, 바람직한 전도란 무엇일까

글 황영미 (집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 4:5

전도자는 전도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직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 '더 웨일'에 나오는 전도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자.

영화 '더 웨일'은 272kg 거구의 몸을 자랑하는 대학의 글쓰기 강좌 강사 찰리(브랜던 프레이저)가 주인공이다. 과거에 캠퍼스에서 만난 제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아내와 딸을 버리지만, 그의 게 이 연인은 죽게 된다. 결국 회한과 죄책감에 싸여 아파트를 미궁 삼아 그 속에서 나오지 않는 삶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신경성 폭식증으로 자신을 학대한다. 무거운 몸으로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워 보조기를 사용해야만 걸을 수 있고, 울혈성 심장병이 심해져 잦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에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딸에게 물려줄 돈을 모으는 게 자신의 목숨보다 절실한 그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급 상황에는 구급차 부르는 경비마저 아낀다. 과거 연인의 동생 리즈(홍차우)가 집으로 자주 찾아와 죽은 오빠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듯 찰리에게 정성껏 응급조치를 해 주지만, 며칠 못 살게 될 것을 알게 된다.

찰리는 가슴 깊이 자리잡은 부성애로 17살이 된 딸 엘리(세디 싱크)에게 연락을 한다. 남편과 헤어진 충격으로 아내 메리(사만다 모튼)는 알콜중독자가 됐고, 문체이로 자란 엘리는 10년 만에 웬 연락이냐며 아빠에게 폭언과 분노를 폭발한다. 하지만 찰리는 딸에게 그동안 모은 12만 달러를 줄 테니 자신에게 글쓰기를 배워 과제를 수정하라고 권한다.

이 영화는 희극작가 사무엘 D. 헌터가 쓴 동명의 연극이 원작이어서 대부분의 공간은 찰리의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밀도를 더한다. '블랙 스완'과 '더 레슬러', '마더!' 등으로 알려진 대런 아로노프스키가 감독한 이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되었다. 기존에 감독한 영화에서 보여 준 기독교에 대한 성찰, 캐릭터의 회한 어린 심경이나 심리적 표현 등의 탁월함은 물론 '더 웨일'에서는 문학적 상징성까지 돋보인다.

찰리는 아내한테서 받은 딸 엘리의 '모비딕'에 대한 에세이를 마르고 났도록 암송하기도 하고, 반항적인 딸에게 자신이 쓴 에세이를 소리내어 읽어 보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며 글을 잘 쓰는지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란다. '모비딕'에서 그려진 흰고래에 대한 에이허브 선장의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복선으로 깔면서 삶의 진실을 담아 내기도 한다.

찰리는 수강생들에게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지의 구성보다 논지의 진실성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괴물 같은 자신의 모습에 역겹다고 할 반응이 두려워 늘 비디오를 꺼둔 상태로 화상 수업을 진행해 온 찰리는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어느 날 비디오를 켜다. 자신의 몸을 수강생에게 보이며 진실성을 강조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노트북을 던져버린다.

더 웨일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담긴 가족 사랑을 강조한 영화이기도 하다. 찰리는 리즈에게 딸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사람은 인간에게 무관심할 수 없다, 사람은 놀라운 존재라고 피를 토하듯 강조한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찰리의 괴물같은 겉모습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재한 상처 같은 괴물성을 상징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미노타우로스 같은 상처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한다.

다르게 주목해 볼 것은 영화가 지닌 기독교적 관점이다. 이 영화의 감독인 대런 아로노프스키는 그동안 <노아>나 <마더!> 등에서 자신의 기독교적 관점을 심오하게 장면화했다. <더 웨일>에서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찰리에게 이단 기독교를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찰리가 사는 연립주택 바깥으로 비가 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동성에 동영상을 보고 있던 그에게 갑자기 한 사내가 찾아와 당황스럽게 한다. 종말을 믿는 이단교단 전도자인 토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한다.

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이, 찰리의 간병인인 리즈가 나타나 토마스를 쫓아낸다. 문 바깥 테이블 의자를 토마스에게 내주며 리즈는 찰리가 없는 사이에 토마스와 대화를 시도한다. 리즈는 아버지가 해당 교단 목사였고, 찰리의 동성 연인이었던 자신의 오빠가 그 교단 소속 신학자였기에 교단 자체가 너무도 환멸스러웠다. 동성애자였던 리즈의 오빠는 목사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동성애자로서 스스로도 견디기 힘들어 결국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래서 리즈는 토마스가 정상적인 전도 통로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눈치채고는 더 이상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찰리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니 전도는 필요없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못해도 토마스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리즈의 심한 구박에도 매일 찰리 집을 방문한다. 혼자서는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찰리는 토마스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방문 아래 떨어진 동성 연인의 방문 열쇠를 줌에 준다. 딸 엘리가 토마스가 정식 전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토마스를 다르친다. 당황한 그가 찰리의 동성 연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 방안 책장에 있는 성경을 펼치자 찰리의 연인이자 리즈의 오빠가 성경에 줄 친 구절이 나온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롬 8:12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산 사람의 갈등이 이 구절에서 드러난다.

토마스를 뒤따라간 엘리는 방문 앞에 핸드폰을 놓고 토마스의 고백을 녹음한다. 답답한 기존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집을 떠나 전도하고 싶었지만, 경비가 없어서 현금함에 손을 댄 것이다.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어 방문 전도는 하고 있지만, 집에는 연락도 못하고 흠친 돈도 떨어져 토마스는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엘리는 녹음 내용을 토마스의 집에 보내고, 목사인 그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처럼 아들을 반길 테니 집으로 돌아오라는 답변을 받는다. 진정으로 바람직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토마스에게는 먼저 전도 행위보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했다. ‘더 웨일’은 바람직한 전도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 일간스포츠에 쓴 <더 웨일> 리뷰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2220034>)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더 웨일> 공식 스틸 이미지

더불어 더 깊이

글 청년부

연합의 씨앗

정성현 형제

솔직히 말하면 부활절 대청연합 예배 때 받은 은혜의 기억들이 점점 바래지고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쓰면서 그때 받은 은혜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예배 순간순간, 선교관 구석구석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반반이었습니다. 찬양팀, 좌석, 특송, 설교, 심지어 광고까지! 정확히 대학 부 반, 청년부 반 나눠서 했죠. 약간은 기계적 반반이라 이게 연합인가 싶긴 했습니다만, 특송에서 연합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보통 특송을 하면 청중들은 철저하게 관람객이 되기 마련인데요. 지휘자님이 갑자기 뒤돌아서 우리를 참여시켰을 때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부정할 수 없었고, 소망 '대학부', '청년부가 아니라 "소망" 대학청년부였습니다.

사실 소망교회가 큰 교회다보니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올 때, 거의 새로운 교회를 가는 기분입니다. 교역자님도 구성원도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망교회"이니 특송 때처럼 우리 모두 한 발짝 참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활절 대청연합 예배는 완벽한 연합이기보다는 **틈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완성된, 진정한 연합이었습니다. 연합의 씨앗이 자라고 퍼져서 더욱 큰 은혜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편함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섭리

안재연 형제

저는 내향적 성향이 강하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가장 꺼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세우고 계심을 청년부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팀을 통해서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을 섬기도록 하시고, 소망부를 통해서 불편한 몸을 지닌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대학청년부 연합예배 때는 연합콰이어로 강단에 오르기도 했고, 올해 초 다녀온 일본 해외 선교에서는 전도대상자분들을 초대할 자리에서 악기 연주를 선보인 일도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아는 분이라면 얼마나 큰 어려움과 도전이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자아와 본능을 거스르는 일은 항상 어렵습니다.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성취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자신 없어 하는 일을 간신히 해 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비록 불편한 곳일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저를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함께하면 기쁨도 두 배

최고은 자매

대학부와 청년부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린 2023년 부활절. 드레스코드를 흰색으로 맞춘 덕분에 예배 전부터 교회 주변에 흰옷을 입은 또래 청년들이 보이면 그저 반가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선교관 2층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내심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예배당 안이 이렇게 깨끗 차 있다니!' 어렸을 때부터 소망교회를 다니며 익숙해져서인지 부활절을 그저 봄철에 맞이하는, 조금 특별한 날로 지내며 보낸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릴수록, 재회의 순간에 느끼는 기쁨 또한 커지는 법. 올해 부활절에는 그러한 기쁨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합창을 부를 콰이어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고 긴 고민 없이 바로 클릭하여 신청했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은 기도문을 노래로 옮긴 것이라는 어느 목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합창을 연습할 때 그 목상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당일, 콰이어로서 예배당에 가득 찬 회중을 마주 보았을 때는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그야말로 연합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더 크게, 더 많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 날은 이미 과거가 되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부활절 절기가 아니더라도 매일의 일상에서 '작은 부활'을 경험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현화이야기 18

6월,
우리의 고백

4월 23일 주일

글 김경연 (집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렘 33:3)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 되게 하소서.



4월 30일 주일

글 김성진 (집사)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 16:6)

줄로 재어 준 구역,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 7일 어린이주일

글 최향실 (권사)

알록달록한 풍성처럼 예쁜 꿈을 키우며
아름다운 꽃처럼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글 박경수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그림 이근복 (목사, 한국기독교교육회지원네트워크 원장)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 존 녹스는 오랜 세월 망명자로 살았다. 녹스는 1547년부터 프랑스 갈리선 노예로 있다가 1549년에 풀려난 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대신, 프로테스탄트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에드워드 6세 치하 잉글랜드의 버라이어폰트워드, 뉴캐슬어폰타인 같은 도시에서 목회했다. 하지만 잉글랜드에서조차 로마 가톨릭 군주 메리 튜더가 여왕 자리에 오르자 녹스는 또다시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1554년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피난민 교회를 맡아 목회 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배 형식과 예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1556년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다.

녹스는 1559년까지 제네바에서 칼뱅의 동역자로 교회 개혁 운동에 헌신했다. 3년 남짓한 제네바 체류는 이후 녹스 종교 개혁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녹스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피난 온 영아권 난민들과 함께, 제네바 생 피에르 교회당 옆 칼뱅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까닭에 이 강당을 '녹스 채플'로 부르기도 한다. 스코틀랜드의 정치-종교적 상황이 호전되면서, 녹스는 프랑스 로마 가톨릭 군대에 사로잡혀 갈리선 노예가 된 지 12년 만인 1559년에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림1]은 녹스 종교 개혁의 심장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당이다. 녹스는 1559년부터 1572년 죽기까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특히 프랑스로 시집갔던 스코틀랜드의 메리가 남편을 잃고 다시 고국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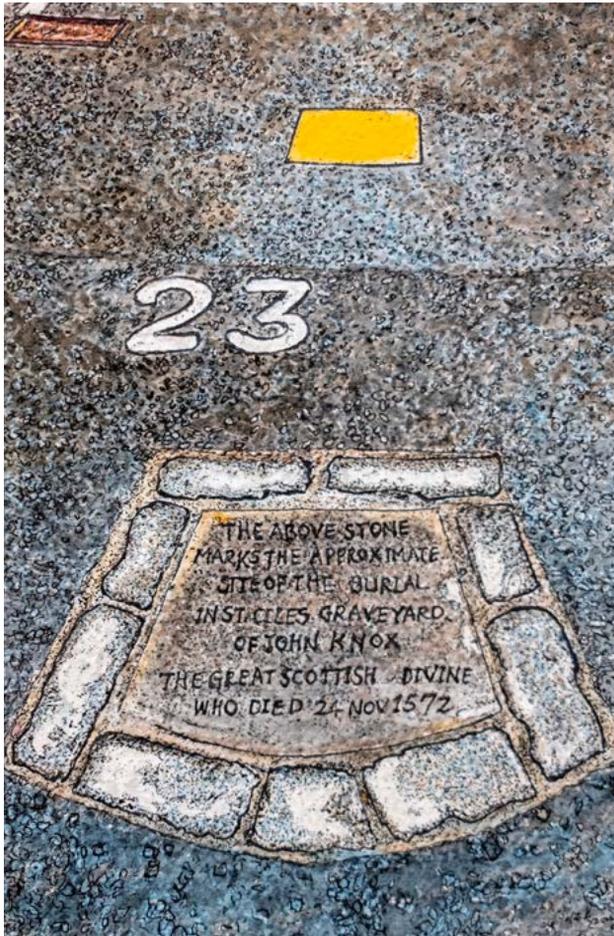


그림 2

으로 돌아온 1561년부터 녹스와 여왕 메리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녹스는 메리 여왕 앞에서도 조금의 망설임이나 물러섬 없이 개혁의 나팔을 불었다. 귀족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녹스가 그려진 교회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이를 잘 보여 준다. 녹스는 1559년부터 1566년까지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사를 다섯 권의 책에 기록했다. 기록한 책에는 그가 어떻게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는지도 상세하게 적혀 있다.

[그림2]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당의 주차장 23번이다.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녹스의 무덤이다. 가끔은 차량이 주차되어 무덤을 볼 수 없을 때도 있다. 필자가 학생들과 이곳을 방문하면 모두 한결같이 스코틀랜드 역사를 바꾼 종교

칼뱅과 녹스 같은 개혁자들은 자신을 기념하는 무엇이 남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개혁자의 무덤이 어찌면 이렇게 초라할 수 있느냐며 놀란다. 바로 이곳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모토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장소일지도 모른다. 칼뱅과 녹스 같은 개혁자들은 자신을 기념하는 무엇이 남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고,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구태인 성인 숭배와 다름없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후예들이 만든 기념탑이나 조각상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지 몰라도 개혁자들 뜻에는 배치될 수 있다.

1572년 11월 임종을 앞둔 녹스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일이 없고,
인간을 만족시키고자 애쓴 적도 없고,
나 개인이나 다른 이들의 정욕을 만족시킨 일도 없으며,
단지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여
내가 감독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고 복음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샅꾼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정직하게 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참된 목자로서 녹스의 일생을 대변해 주는 유언이다. 장례식에 참석한 스코틀랜드 섭정 모턴 백작은 “여기 일생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은 사람이 누워 있다”고 말했다. 참으로 녹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자 했던 복음의 나팔수였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는 바울의 고백이 새삼 마음을 뜨겁게 한다.

※ 저자의 허락을 받아 <복음과 상황>에 수록된 글과 그림을 게재하였습니다.

세계관과 예술의 만남을 회고하며

글 허윤정 (집사)



2023년 1월호부터 '세계관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 하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기에 일어난 세계관의 변화가 미술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소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소개해 온 내용들을 돌아보며 '세계관과 예술의 만남'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중세의 신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단서를 열어 놓음으로서 자연 영역이 어떻게 은총의 영역을 침범해 나가는지를 필립포 리피^{Filippo Lippi}와 장 푸케^{Jean Fouquet}의 성모자상 작품의 세속화 과정을 통해 보았습니다. 중세 시기에는 성모 마리아를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어느 얼굴로 성모의 얼굴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립포 리피는 자신의 아내 얼굴을 성모 마리아로 그렸고, 장 푸케는 그림 1과 같이 본인의 정부를 성모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림1. 장 푸케, 천사들에 둘러싸인 성모자, 1450



그림2. 지오토, 애도, 1450

아퀴나스의 인간관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중세의 비잔틴 문화에서는 영적인 영역이 강조되고 현실 속의 구체적인 삶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로 인해 자연과 자연에 속한 인간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영감을 받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 즉 현실 속의 구체적인 사물을 강조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별자는 인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감정이 작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은 화가로 지오토^{Giotto di Bondone}를 소개했습니다. 그림 2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형상화한 지오토의 작품 <애도>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얼굴의 표정뿐만 아니라 손을 아래로 뺏거나 양쪽으로 뺏은 모습 속에서 극한 슬픔이 느껴집니다. 천사들은 양손을 얼굴에 대고 안타

한타

까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감정이 예술 작품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퀴나스의 인간관은 중세의 비잔틴 문화로부터 벗어나 현실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별자 개념과 함께 인간의 감정이 예술 작품에 더욱 다양하고 깊게 표현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오토의 작품은 이러한 변화를 대표하는 예시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발명품이 나옵니다. 바로 원근법과 명암법입니다. 인간의 눈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원근법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하는 르네상스의 형이상학적 성찰의 구조입니다. 명암법도 인간 눈이 중심이 되어 객관적인 빛을 상징하고 그 빛에 따라 대상의 밝고 어두움을 표현함으로써 입체감과 깊이 있는 공간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에서 이룩한 원근법과 명암법은 이후 서양미술사에서 500년간 유효한 기법으로 미술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림3. 뒤러, 네 사도, 1526

종교 개혁이 미술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대표적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장 칼뱅(Jean Calvin)을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강조한 루터의 종교 개혁은 미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독일 작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의 제단화를 통해 종교 개혁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작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성모와 가톨릭 성인 그림이 공식적으로 금기시되면서 선례가 없는 그림 3과 같은 제단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요한, 베드로, 바울 그리고 마가입니다. 뒤러는 사도 요한과 바울을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가톨릭교회가 중요시한 베드로나 역사적 예수를 증거한 마가보다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강조한 종교 개혁의 정신을 드러내었습니다.

루터와 달리 칼뱅의 미술에 대한 태도는 달랐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미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며, 이미지를 사용하여 신앙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기존의 가톨릭 미술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이것은 성상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성상 파괴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상 파괴 운동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미술가들은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스페인의 압제 시기에는 개혁교회 스타일의 작품을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술가들은 탈출구를 찾게 되었는데, 새로운 장르인 초상화, 풍자화, 풍경화, 정물화 등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얼굴과 인물을 그리는 초상화는 개인의 독립성과 개성을 강조하며, 종교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풍경화나 정물화도 종교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운 장르였습니다. 칼뱅의 영향으로 네덜란드 화가들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작품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 화가들 중 그림 4의 피터 브뤼헬(Pieter Bruegel the Elder)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기존의 가톨릭 성화가 신적 존재를 형상화하였다면 브뤼헬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기존의 기독교 성화와 다른 방향으로 신교에 적합한 미술 형태를 개척해 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



그림4. 피터르 브뤼헬 더 아우더, 맹인들의 우화, 1568

으로 의심받지 않으면서 모순적인 현실을 풍자하는 종교적 풍자화라는 미술 장르가 칼뱅의 종교 개혁 영향으로 개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년의 중세에서 르네상스로의 변혁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 예술, 학문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종교 개혁 시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세계관의 변화가 미술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 작품들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림 출처]

그림1.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b/Jean_Fouquet_005.jpg | 그림2.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iotto_di_Bondone_009.jpg | 그림3. https://en.wikipedia.org/wiki/The_Four_Apostles#/media/File:Albrecht_D%C3%BCrер_026.jpg, https://en.wikipedia.org/wiki/The_Four_Apostles#/media/File:Albrecht_D%C3%BCrер_027.jpg | 그림4. https://en.wikipedia.org/wiki/The_Blind_Leading_the_Blind#/media/File:%D0%9F%D1%80%D0%B8%D1%82%D1%87%D0%B0_%D0%BE_%D1%81%D0%BB%D0%B5%D0%BF%D1%8B%D1%85.jpeg

Effects and Clinical uses of Probiotics

유산균 제제의 효과와 사용

글 이수혁 (집사)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는 경구로 복용하였을 때 인체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이다. 이는 체내에서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정상세균무리와 균형을 이루어 장 내에서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상피 세포에서 면역 능력을 증가시키고 장관의 염증을 줄이기도 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인간에게 주는 유용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파리 파스퇴르 연구소에 근무하던 러시아 과학자 메치니코프^{Eli Metchnikof}이다. 1908년에 발효 유제품을 섭취하는 불가리아와 러시아의 농부들이 장수한다고 보고하였고, 1965년 Lilly와 Stillwell은 다른 미생물의 성장을 유도하는 미생물의 생성 물질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최초로 명명하였다. 현재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병원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농도로 살아 있는 미생물을 포함한 음식이나 약제로 정의되고 있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기구^{FAO}의 합동전문가위원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살아 있는 미생물로 적당한 양을 섭취하면 건강에 유익한 세균이라고 정의했다.



사람의 장내정상세균종으로 유산균으로 쓰이며 요구르트를 생성하는 Bacteria Lactobacillus (유산균 제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와 조건

프로바이오틱스에는 Lactobacillus나 Bifidobacterium과 같은 유산균제제와 Saccharomyces나 Bacillus와 같은 균제제 등이 있다. 국내에서 약제로 사용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Lactobacillus acidophilus 단독 또는 복합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발효유로 Lactobacillus와 Bifidobacterium 및 S.thermophilus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1917년에는 E.colinissle 1917가 세균성 이질의 치료로 시도되었다.

하지만 효과가 뛰어나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 인체와 숙주에 도움을 주고, 2) 장관에 정상적으로 서식이 가능해야 하며, 3) 섭취 후 위장과 같은 상부 위장관을 살아서 통과하여 장관의 정상세균무리와 경쟁하며 자랄 수 있어야 하고, 4) 병적이지 않고 독소를 생산하지 않아야 하고, 5) 살아 있는 상태로 대량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6) 산성 환경이나 담즙산에 저항하여 장관 안에서 생존하고 대사할 수 있고 장관에 부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7) 음식이나 약품 안에서 생존이 잘된 상태로 유지되고 보관될 수 있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임상적인 효과

여행자 설사 (traveler's diarrhea)

여행 중 감염된 음식 섭취로 복통, 욕지,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4일 이내 자연 치유되거나 10%는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수액 치료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며, 소아의 여행자 설사에 보다 효과적이다.

항생제 연관 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항생제 노출 2~8일 후 발생하며, 장관 내의 정상세균무리에 변화가 발생하면 탄수화물 발효에 이상이 생겨 장관 내 삼투압과 산도의 변화가 생겨 설사가 발생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생제에 의해 변화된 장세균 무리를 정상화시키고 면역 반응을 증가하여 항생제 연관 설사를 유발한 병원균과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 락토바실러스균, 비피더스균 등이 항생제 연관 설사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민성 장 증후군 (irritable bowel syndrome)

반복적인 복통, 복부 불편감, 배변 습관의 변화, 복부 팽만감 등 다양한 하부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는 전반적인 증상의 개선, 복통의 호전, 가스 관련 증상의 호전 효과가 보고되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환자에게 특정 균주나 용량을 추천할 수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 판정을 위해서는 4주 이상의 지속적인 투약이 권고된다.

염증성 장 질환 (inflammatory bowel disease)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등이 있으며 장관에 원인 미상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임상 증상을 보인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에 프로바이오틱스의 투여는 관해율을 증가시키지만 관해의 유지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Helicobacter pylori)

프로바이오틱스는 위내 산도와 염증을 감소시키는 항염증 싸이토카인을 분비, IgA를 증가시켜 점막 방어를 강화하고 헬리코박터균의 특정 IgG 항체를 감소시켜 위 염증 작용을 감소시키고 박테리오킨과 젖산, 아세트산 같은 항균성 물질을 분비한다. 제균 요법 중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때는 *S. boulardii*가 효과적이다.

변비 (constipation)

장관의 운동성에는 면역 및 신경계 기능, 담즙산 대사 및 점액 분비, 위장관 미생물 및 발효 등의 불균형이나 기능 장애가 발생하면 비정상적인 장관운동성이 유발되어 변비가 발생한다. 소아 변비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Bifidobacterium*을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노인 변비 환자의 10~40%가 호전되었다.

간질환

진행성 간질환에 동반된 간성뇌증 진행 억제에 도움이 되었고,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비알코올성 간질환과 지방간염 환자에서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아토피 피부염 (atopic dermatitis)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없으며 주산기에 *Lactobacillus rhamnosus* strain GG(LGG)를 섭취하면 아토피 피부염 위험군의 소아에서 생후 2년 동안 피부염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정성과 부작용

정상인에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는 복통, 설사, 복부팽만감 등 경미하거나 일시적 이상 반응이 발생시킬 수 있다. *S.boulaardii*를 복용하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설사가 악화되고 면역감소환자 등에서 30예의 균혈증 보고가 있는 바, 위험군에 속한 환자의 경우 프로바이오틱스 복용과 관련하여 전문의의 상담 또는 처방이 필요하다.

결핵성 대장염으로 인한 변비로 손가락 관장을 자주 해야만 하시던 노인 환자 분이 마지막 관장 후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할 때, 환자와 옆에서 늘 병간호하시던 부인의 얼굴에 평화로운 기색이 보였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이젠 영원한 평안을 얻으셨다고.

현대 과학의 첨단 약제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랑이 깃들인 손의 치유가 얼마나 대단한가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참고문헌]

1. Fioramonti J, Theodorou V, Bueno L, Probiotics: What are they? What are their effects on gut physiology? Best Pract Res Clin Gastroenterol disorders. 2003;17:711-724.
2. Fedorak RN, Madsen KL, Probiotics and probiotics in gastrointestinal disorders. Curr Opin Gastroenterol 2004;20:146-155.
3. Jayaprakasha HN, Yoon YC, Paik HD. Probiotics functional dairy foods and health calims: an overview. Food Sci Biotechnol 2005;14:523-528.

한
반
짝
가
까
이

분단된 땅을 바라보며

글 이경혜 (장로)

가나긴 코로나 역병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하나 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제직부서 첫 나들이로 도라산 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민통선 입장을 위한 신분 확인 때문에 한 달여 전에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160여 명이 신청해 성황리에 나들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통일을 염원하며 분단된 북한 동포를 가슴에 품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랜만의 나들이에 대한 설렘과 봄을 기다린 마음으로 모두가 환한 미소를 장착하며 출발했습니다. 1시간 조금 지나 임진각에 도착했는데 생각지 않은 많은 내외국인들의 인파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의 분단 현실을 생생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민통선에 다다르니 무장한 군인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신분 확인을 일일이 한 후 통일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김영규 목사님이 전하신 귀한 말씀(“물이 바다 덮음같이”)으로 예배드리고 북한 땅이 내려다보이는 도라산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현실인 남북 관계처럼 안개와 이슬비로 흐릿하게 갈 수 없는 땅이 보였습니다!

장년 세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북한은 괴뢰도당이라고 철저히 교육받아 왔는데 어느 시점부터 화해의 장으로 변하고, 이 땅에 이탈자들이 많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한다고는 생각했지만 너무도 빠른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수시로 자신들의 전력을 자랑하기 위해 쏟아내는 미사일! 이웃 일본이나 CNN은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코앞에 있는 우리는 ‘또 쏘았군’ 하며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지척에 38선이라는 금을 긋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바라보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매한 인간우상화 치하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조차도 지하로 뽕뽕 숨어 있다 하니, 우리의 자유로운 발걸음에 감사와 더불어 안타까움이 가슴에 저며 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중도 이탈자 자녀를 위한 미래소망스쿨(병과 후 기숙학교)교장을 임명받아 섬기게 하신 주님, 북방선교부 부장으로 섬기게 하신 주님! 믿음의 군사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 붙잡고 분단된 우리 동포를 어떻게 품어 나갈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해 주저앉게도 되지만 주님 주신 사명으로 품고 힘 모아 일어나 아끼 발걸음이 되더라도 열심히 나가려 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3만여 이탈 주민은 드러나기도 하고 음지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 복음을 깨달아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 중국 땅 음지에 숨어 있는 이탈자들, 그들을 돕는 접경 지역 사역자 및 선교사님들, 국내 거주 외국인 탈북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온전히 내어 맡기오니 “주님 앞서 가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택’ 아닌 ‘필수’

윤OO 자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는 북한에서 중학교 시절 CD플레이어를 통해 접한 노래입니다. TV 영상 속에서 나오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여대학생 2명이 남북한 지도 위에서 38도선을 넘나들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38도선 경계에서 둘이 껴안고 통일을 이루자를 부르며 막이 내립니다.

이 노래는 1990년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북한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06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 환송연에서 남북대

표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소원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은 이 노래를 공식적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 그 해부터 태어난 북한 주민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사라지고, 북한 정부가 만들어 낸 이미지로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요. 세뇌 교육의 나라가 아닙니까? 물론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등이 북한에 유입돼 북한 청년들의 의식 수준을 깨우치고는 있지만, 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과 얼마나 의사소통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 외에도 직면하게 될 많은 문제를 떠올리면 통일 준비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2014년부터 진행한 'KINU 통일외식조사'에 따르면 남북 관계의 변화와 크게 상관없이 2016년 이후 국민 중 평화 공존 선호 비율이 2016년 43.1%에서 2021년 56.5%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통일 선호 비율은 같은 기간 37.3%에서 25.4%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북한은 중국의 것입니까?”라고 질문하면, 대다수 국민은 “아니요”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은 한국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을 무관심에서 관심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투복을 입지 않고 전장에서 싸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통일의 초석이 될 통일 백서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5월 첫째 주

온통기쁨 시즌2 수료식

온라인 사역실에서 개최한 온라인 성경통독 '온통기쁨' 두 번째 수료식이 지난 4월 18일 저녁 8시 선교관 2층 예배실에서 있었다. 지난해 11월 말 첫 수료식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프로젝트에는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성도 360명이 참여해 바울서신을 통독했다. 조성실 담당목사는 시편 1편 2절 말씀의 '묵상하다'라는 표현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은 참여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시간은 '주의 은혜라', '은혜'로 알려진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의 눈물 젖은 간증과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졌다. 360명의 신청자 중 개근한 성도 339명을 대표해 최고령자 유정임 권사와 최연소자 구하영 학생이 선물을 받았고, 4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통독을 완료한 서로를 향해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시간도 가졌다. 통독 참가비는 사회봉사부를 통해 다니엘 복지관과 은누리 작업장 등 기관에 필요한 물품으로 기부되었다.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은혜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간 성도들, 넘치는 복을 이웃과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5월 셋째 주

2023 어린이주일 · 어버이주일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 행사를 가졌다. 어린이주일인 5월 7일, 교회학교 1부는 소망교회 앞마당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꿈이 쑥쑥 소망놀이터’로 꾸몄다. 본당 앞에는 에어바운스, 바이킹과 트램폴린, 꼬마기차 등이 들어섰고, 본당 옆 주차장에는 키즈라이더 등이 준비된 키즈존과 스텝퍼, 두더지잡기 등 게임존이 마련됐다. 제2교육관 앞 로비는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남기는 ‘인생네컷’, 좋아하는 말씀과 찬양 구절을 작가들이 적어주는 ‘캘리그라피’ 부스가 어린이들을 기다렸다. 이날 김정진 담임목사의 집례로 2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총 52명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가 베풀어졌다.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 갈 것을 약속했다. 어버이주일인 14일, 온가족 예배에서는 2-4부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송을 선보였다.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온가족 가정 예배 순서지>를 배부했고, 예배 후에는 대학, 청년부, 청년플러스 지체들이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축복 행사를 가졌다. 소망의 뜰 안에 온 세대가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을 통해 믿음의 세대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길 바란다.



2023 | 06

발행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환
유지미
이경희
김영규
홍성민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하수경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위크위크
인쇄 금호인쇄

발행일 2023년 5월 27일(통권 138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tpd@naver.com

소망 영성 마음

주제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갈 5:16)

일정

6.22(목) - 24(토), 2박 3일

장소

소망수양관

강사

유재경 목사 (대덕교회 담임목사)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은퇴목사)

현요한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은퇴교수)

허니브리지 11기

Honey Bridge 11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1박 2일 행복한 모임에
소망의 신혼부부를 초청합니다.

2023. 6. 16 Fri - 17 Sat

알로프트 서울 명동 호텔

강사 : 김경진 담임목사 및 외부 강사

허니브리지는 신혼부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가교로서의 모임입니다.

